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24호

영광과 영광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

칭하이 무상사
1998. 12. 18. 미국 LA 국제선상
(원문 영어)

나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껴도 자신이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으며, 그건 온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위대함을 깨닫는 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 점을 알게 되겠지요.

일단 그 점을 깨닫기만 하면, 그 무엇도 여러분의 깨달음을 잃게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흠쳐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나 폭력의 위협, 권력, 그 어떤 위험도 그 깨달음을 빼지 못합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원래부터 위대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 삼매에 들면 모든 세계가 사라지지요. 우리는 완전히 빛이며, 자유일 뿐입니다. 온통 아름답고 행복하며 은총이 가득하게 됩니다. 결코 이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며,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존재하지도 않는 육체에 일어나는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모습을 찾아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단순해지고 우리 자신을 알 때가 어서 빨리 오길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신, 자유,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존재라는 점을 깨닫길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누구'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리가 신이고 빛이며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건 아주 멋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걱정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아름답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육체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젊어서 잠든 새 죽지 않는다면, 아름답게 죽을 것이라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육체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길을 걷거나 잠잘 때조차 지진이 나 기타 온갖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물질적인 일들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깊이 깨닫는 데에만 신경 쓰십시오. 일상에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는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취미 생활 하듯이 하루 몇 시간씩 수행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하고도 절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식물이 자라듯이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위 스승님의 말씀을 비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4/mt.htm> (미국)
<http://Spiritual-Discovery.org/eng/news/124/mt.htm> (미국)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지역: 캐나다 토론토
방송국 채널: 로저 텔레비전- 채널 10
제목: 칭하이 무상사의 비디오 강연
시간대: 2001년 8월 5일 오후 12시 30분
2001년 8월 12일 오후 12시 30분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TV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방송시간표에 대해선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주시십시오.
<http://www.spiritual-discovery.org/events/tv.htm>

2001년 6월 23일
캘리포니아 프레스노에서
스승님이 강연하시다



플로리다 센터에서
스승님과 제자들의
행복한 만남



스승님과 귀여운 동물들의
정겨운 모습



프레스노 강연 다음 날인 6월 24일
공연을 감상하는 스승님과 제자들



앞표지 안 / 스승님 말씀

여러분 자신의 위대함을 깨달으라

스승님의 최신 사진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02 다채로운 이벤트

미국/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 호주/ 포모사/ 한국/ 스리랑카/ 네팔

09 수행의 길목에서

내면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10 특별보도

피안과 이안에서 스승님과과의 재회

15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천국의 “호텔”로 들어서라

28/ 41 스승님의 농담

아내는 훌륭해!!/ 정말 주도면밀한 선물

29 제일선에서

우크라이나로 날아간 자유의 새들/ 신의 축복이 카리브해를 비추다

34 신기한 감응

기적의 갑옷 - 천의/ 마침!

35/ 뒷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오디오 테이프/ DVD/ 비디오 테이프/ MP3

36 성인의 거처

작은 정원, 성인의 거처

37 수행일화

잡초 뽑기를 통한 체험

38 음악과 삶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공연 그 이후...

41 수행 수상록

명상그자체가 상이다

42 어둠 속의 등대

칠레/ 포모사

44 사랑의 실천

미국/ 홍콩/ 포모사

46 관음 웹사이트

47 전세계 연락처

뒷표지 안 / 무상예술



사랑은 우주의 최고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그 어떤 것도 씻겨 나갑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4호**

출판일자 : 2001. 12. 23.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신의 지혜의 빛을 나누다

[로스앤젤레스] 2001년 4월 28일과 29일, 그리고 6월 3일, LA센터 동수들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두 차례의 행사를 열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기쁨의 도서축제

2001년 4월 28일과 29일, LA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의 캠퍼스에서 미국의 가장 큰 문학행사 가운데 하나인 제6회 LA 타임스 도서축제가 개최되었다. 객원 초청 연설회, 작가 사인회 및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진 이 행사에는 작가 400명과 300여 개의 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약 10만 명이 인파가 몰렸다. 객원으로는 세계적인 SF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 영화 배우 제인 세이모어, 리처드 라울만 LA시장, 그리고 오스카와 에미, 토니상 수상작가인 시드니 쉐던이 초청받았다.

LA동수들도 부스를 준비해 스승님의 음악과 예술 작품들을 아름답게 전시했다. 전시대에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며 영성과 명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아프리카의 한 힌두 구루는 “이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매우 심오한 영감을 주는군요”라고 했으며, 한 중국인 방문객은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은 매우 특별한 여성이시군요. 그렇게 추운 고산에 올라 홀로 수행하며 당신의 신실한 믿음에 부합하는 진리를 찾다니, 정말 용감합니다.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하시고요.”



KSCI 방송국 국제채널에서 방송 중인 “예술과 영성”의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전시대를 찾아왔다. 시청자 중 한 사람인 미국계 흑인여성은 스승님의 남아공 케이프타운 강연방송을 보고 나서 우리 전시대에 들리기 위해 이번 축제에 오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이 분이 교회에서 연설하시는 것을 봤는데, 참 평온하고 모든 사람들을 염려하시는 게 느껴지더군요. 신과 완전히 일치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전 스승님을 정말 좋아해요”라고 말했다. 다른 한 시청자는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이 분이 진실로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아름답고 많은 위안을 주며, 많은 부분에 있어 신이 우리에게 하실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큰 감동을 받았지요. 스승님은 아름다운 여성이면서 또한 굉장히 영적이지요.”

모두들 스승님의 예술창작품의 아름다움에 경외심을 느꼈으며, 그 중 한 여인은 스승님의 시집을 사면서 스승님의 시에 담긴 영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스승님의 글과 음악에 감탄하며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우리 방명록에 이름을 남겼다.

성공을 거둔 한인타운에서의 또 다른 활동

2001년 6월 3일 지역 동수들은 LA 한인타운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갖고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한국 사람들은 구도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을 갖고 있다. 이 신실하고 겸허하면서도 근면한 사람들은 언제나 스승님의 축복으로 보답받은 했다.

강연장을 찾은 손님들은 한복을 입은 한국사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또 맛있는 음식과 화려하게 장식된 강연장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두 명의 한국사제들이 입문 후 겪은 놀라운 체험담을 발

표한 후 비디오를 상영했다. 작년 스승님의 한국 서울 강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며 스승님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에 집중했다. 이 후 방법법이 전수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입문을 신청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LA에서 펼쳐진 이 두 행사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해탈과 깨달음에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스승님의 지혜와 신의 지혜의 빛을 전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

사랑의 기운을 다시 복돋은 헤이트 스트리트 예술제

[샌프란시스코] 헤이트-애쉬베리는 캘리포니아와 가까운 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지역은 1960년대 고지원적인 인류의 자각, 평화, 여성과 소수인종의 평등, 식물과 나무, 동물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의 권리 등을 주장하는 강력한 문화운동의 중심지였다. 샌프란시스코는 매년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황금시대를 경축하고 기념하는 헤이트 예술제를 헤이트-애쉬베리에서 개최한다.

헤이트 축제는 풍부한 역사와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에게는 지역 사회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더불어 6월 23일로 예정된 스승님의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강연소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행사 당일, 전시대에는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 테이

프, 새로 나온 DVD 등이 진열되고, 스승님의 불찬으로 전시대와 주변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다. 이날 우리 부스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그 중 수행에 관심을 가진 방문객들은 스승님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지역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 스승님의 프로그램을 접했던 구도자들도 역시 찾아왔다.

이 날 행사의 주제가 영성은 아니었지만, 스승님과 명상, 영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놀라운 것이었다. 예전에는 주로 “전인적 삶” 엑스포처럼 영성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번 행사의 성공으로 영성 박람회 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흥법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칠레 소식

살아있는 스승의 복음이 칠레에 널리 퍼지다

[산티아고] 칠레에 도착하기 전부터 관음사지는 칠레 동수들이 매우 신실하여 각지에서 흥법활동들을 열심히 펼치고 연락인들도 스승님 일을 헌신적으로 도맡아하고 있



칠레 최초의 야외 선은 이곳 입문자들에게 멋진 추억이 되었다

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관음사자의 방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입문을 신청하고 비디오 강연회에 지역사회가 열렬한 호응을 보낸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강연 전부터 칠레센터는 동수들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전화와 빗발쳤다. 이러한 현상은 황금시대로 들어서면서 영적 수행에 대한 개념이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였다. 행사장은



입문식이 끝난 후 새 입문자들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만발하다

강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인파로 가득 차 늦게 도착한 청중들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급히 설치한 TV를 통해 실시

간으로 강연을 지켜보았다. 동수들은 이번 세미나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대단한 관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후 칠레 동수들은 칠레 최초의 야외 선이를 개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산티아고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선행사장은 넓고 아름다운 잔디밭 위에 많은 방갈로들이 드문드문 자리잡고 있었다. 동수들은 만족과 축복을 흠뻑 느끼며 이곳이 앞으로 중미, 나아가서는 국제선행사지가 될 수 있길 기원했다. 칠레센터는 이 지역 동수들의 신실한 노력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Las Últimas Noticias

1100 Páginas • JULIO y AGO 2001 • Año 10 • N° 32.365 • Martes 18 de marzo de 2001

4 TIEMPO LIBRE

Panoramas de hoy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 소식을 전하는 칠레 신문 보도

Meditación universal

Todas las personas, sin importar su credo, son bienvenidas a la séptima conferencia que enseña sobre el método de meditación de la maestra Ching Hai. Esta es una oportunidad para aprender, con la ayuda de un monje tibetano, cómo alcanzar la iluminación y el amor en la contemplación de la luz y los universos interiores. Los conocimientos de Ching Hai, premio internacional de la paz mundial en los Estados Unidos (1994), se hacen presentes a través de su representante tibetano, Tong Koi. A las 18.30 horas, en el Instituto Cultural de Proveniencia (11 de Septiembre 1960). Entrada libre.



파라과이 소식

진리의 말씀이 파라과이에 전해지다

[아순시온 파라과이는 남미 아르헨티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관음사자와 아르헨티나, 칠레 동수들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비디오 세미나를 마친 후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도착해 아주 성공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 C.D 이스트에서도 소규모 흥법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이곳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를 희망했다.

이번 행사는 아순시온 최초의 흥법 강연회였다. 이곳에는 이제 막 브라질에서 돌아온 젊은 사제 한 사람 밖에 없었는데, 이 신실한 사제는 행사장을 찾기 위해 지방을 수소문했지만 장소를 찾지 못했고 작업팀을 위한 숙소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그녀가 스승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자, 얼마 후 기적들이 일어났다. 먼저 시내에 위치하면서 행사장으로 이상적인 장소를 찾게 되었고, 그녀의 사장이 적절한 시세로 아파트를 빌려주었는데, 여관보다 훨씬 싸면서도 편안했다. 이 사제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CON LA MUJER Y EL HOGAR

Asunción, jueves 5 de abril de 2001

MAESTRA CHING HAI, EN VIDEOCONFERENCIA

Paz interna a través de la meditación quan yin

"La melodía interna puede sanar todas las heridas, satisfacer todos los deseos y apagar toda sed mundana. Es todo poder y todo amor. Es debido a que estamos hechos de este sonido que el contacto con este nos trae paz y felicidad a nuestros corazones. Después de haber escuchado el sonido, la totalidad de nuestro ser cambia, nuestra concepción de la vida cambia grandemente para mejorar". (Palabras de la maestra suprema Ching Hai.)

Para experimentar la paz y la alegría internas a través del método quan yin de meditación, que consiste en la contemplación de la luz y el sonido internos, a través del cual podemos descubrir la paz, sabiduría y amor, asiste el sábado 7 de abril, a las 16.00 -sin costo- a una conferencia en video de la maestra iluminada de los Himalayas, maestra suprema Ching Hai, en el teatro de las Américas del CCPA.

La maestra suprema Ching Hai, el símbolo de la sabiduría y una guía espiritual, ha ofrecido conferencias en las Naciones Unidas y ha obtenido el premio internacional de la Paz.

Maestra Ching Hai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 소식을 전하는 칠레 신문 보도

이번 강연회에 대해 아순시온의 최대 신문사 두 곳에서 보도를 하고 여러 라디오와 유명 TV 방송국과 생방송 인터뷰를 했다. 기적은 연달아 일어났다! 우리가 이번 강연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라디오 방송국에 전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방송국의 이름난 사회자인 움베르토 루빈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스승님의 아름답고 고아한 모습을 보고 강연회의 주제를 읽고 나서는 바로 매주 금요일 저녁 주요시간대에 방영되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우리를 초대했다. TV인터뷰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 방송에서는 또 스승님의 약력이 담긴 '사랑의 길을



파라과이의 비디오 강연회



아순시온 라디오방송국과의 인터뷰

간다' (비디오)를 방영하기도 했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그 감동적인 내용을 본 후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적극적인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오랜 동안 영적 수련을 해오던 사람들이었으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어 행복해했다. 방편법을 배운 많은 사람들은 추후 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남겼다. 다음날 방편법 단체명상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예비입문자들도 참석했다. 다른 법문을 수행해왔던 한 예비입문자는 이 이틀 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희열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브라질 소식

성황리에 마친 비디오 세미나

[상파울로] 상파울로의 동수들은 대부분 입문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수행과 명상은 그들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리를 나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의욕이 깊이 자리잡고 있어 스승님이 세계 순회강연을 하실 때면, 언제나 강연 준비팀에서 일하는 브라질 동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신실함과 헌신적인 마음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최근 브라질은 관음사자의 방문을 맞아 레시페, 상파울로, 레벨론 블레토, 벨렘, 솔로가바 등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 그 중에서도 상파울로 강연회는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보통은 지역언론사에 행사소식을 싣기 어려운데도 우리는 다행히 지역 중국신문사에서 강연회를 전후해 행사에 대한 기사를 실어주었다. 한 한국신문사도 연속 3일 동안 스승님의 가르침과 이번 행사에 대해 전면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참석해 그 중 한 출



브라질의 중국, 한국신문사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보도하다



강연회 후 영적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많은 청중들이 명상을 배우기 위해 손을 들다

가슴은 바로 입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브라질 순회홍법은 대단한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나 힘든 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입문에 헌신하는 동수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정말 그들의 영적 성장은 기쁜 일이었다! “수행

을 통해 깨달음과 해탈을 얻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에 모든 동수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호주 소식

성황리에 마친 비디오 세미나

[바이런베이/노던리버스]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관목들로 둘러싸인 노던리버스의 한 고원에서 최근 선삼이 열려 지역 동수들에게 커다란 영적 충만감을 주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산 정상이었는데, 스승님의 무소부재하신 힘과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자 마치 천국의 한 곳에 있는 듯 했다. 이 기쁨과 조화를 느낀 동수들은 스승님이 창조하신 이 낙원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했다.

처음 이틀 동안 안개와 소나기가 내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아늑한 명상홀의 보호를 받으며 즐거움을 맛보



았다. 그러다 마지막 날에는 날씨가 맑게 개어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은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동수들은 가을 햇살 속에서 고양된 기분과 영적 활력을 만끽할 수 있었다. 각자 스승님의 제일 큰 선물인 관음법문을 열

심히 수행하며 발전하는 건 정말 기쁜 일이기도 두들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경험은 다음 선이 있을 때까지 스승님의 큰 사랑과 함께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포모사소식

갠지스 강의 기원-영성의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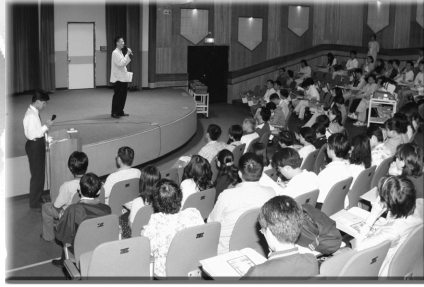
[타이베이] 북포모사 대학생 동수들은 2001년 4월 대학캠퍼스 박람회 이어 다시 5월 중순에 대만 국립대 광음회(光音會)와 대만 사범대의 심신연구발전 연구회 등 동수들로 구성된 학회의 영성 세미나를 지원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행사에는 예전에 인도 홍법을 다녀온 관음사자가 주연설자로 나서 “갠지스강의 기원-영성의 전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행

사는 대학생 동수들이 주도하는 첫번째 세미나 형식의 홍법활동이었으며 사범대 동수들이 캠퍼스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첫 행사이기도 했다.

행사를 알리기 위해 동수들은 그룹별로 밤새 캠퍼스에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을 돌렸다. 그리고 서로 용기를 내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교차로 입구에서 화성기를 통해 연설과 노래를 선보이는 가두광고를 했다.

이런 선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행인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주의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전단지들을 못 받고 지나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받는 바람에 매일 1천 장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다.

대만 국립대와 사범대 두 곳에서 열린 세미나는 모두 만원을 이뤄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TV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야 했다. 세미나에서 관음사지는 인도의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 생생하고 유머스럽게 간략히 소개하고 인도의 콤바멜라 행사, 영체여행 등 재미있는 일들도 얘기 해주면서 수행 소감을 대중과 함께 공유했다. 그리고 나서는 히말라야 여행 중 일어난 재미있는 일화



북포모사의 대학생 동수들이 캠퍼스에서 첫 번째 홍법 강연회를 개최하다



에 대해 말씀하신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했다. 스승님이 농담하실 때마다 장내에는 큰 웃음이 터져 분위기가 훨씬 화기애애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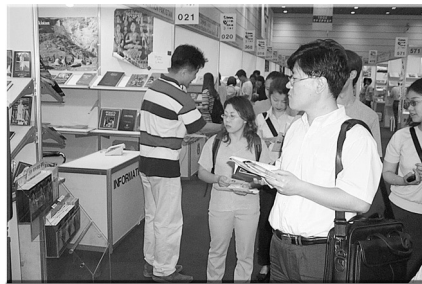
세미나에는 교사와 학생을 비롯해 여러 종파의 수행자, 직장인, 주부 등 각계각층 사람들이 참석했다. 사람들은 전단지를 진지하게 읽거나 열심히 메모하고 비디오 시청 후 여러 번 손을 들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가 끝난 후 방편법을 신청했다. 스승님의 은총으로 이 홍법행사들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동수들은 앞으로도 이같은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한국 소식

서울 국제 도서전시회

[서울] 서울 코엑스에서는 6월 1일부터 6일까지 국제도서전시회가 열렸다. 지난 2000년 사랑의 바다 순화강연 기간 동안 스승님의 한국강연이 열렸던 곳이라 한국 동수들에게는 이번 행사가 새삼 의미 깊었다. 동수들의 일차단결된 노력과 도움으로 행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우리 부스는 스승님의 대형 그림과 책, 잡지, 예술창작품을 아름답게 전시하고 대형 TV를 설치해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와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을 상영했다.

전시회를 찾은 많은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 여인은 매일 우리 부스를 찾아



왔고 옆 부스의 담당자는 견본책을 읽은 후 자신의 출판사에서 스승님의 책 출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시회의 마지막 날은 마침 현충일이어서 많은 인파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 견본책자가 모자랄 정도였다. 이날 나눠준 견본책은 지난 5

일 간 나간 양보다 많았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서울 센터로 문의전화를 걸거나 찾아와 방편법을 배웠다. 이 전시회는 한국 동수들이 깨달은 스승을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눠줄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길이다

[대전] 2001년 6월 21일 한국 동수들은 대전시청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수백 명이 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강연회가 밤늦게 끝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남아 명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했다.



강해지고, 거기에 더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노력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돕는 결과를 낳는다.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도를 구할 수 있도록 스승의 일을 돕는 작은 노력 하나 하나는 모두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라고

그들의 진리에 대한 갈망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하신 스승님의 말씀처럼 말이다.

매번 흥법 활동에 참가할 때마다 우리의 신심 또한

축복해 주신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소식



[콜롬보] 2001년 4월 28일, 콜롬보 동수들은 스승님의 스리랑카 방문 1주년을 맞아 스승님의 예술창작품과 출판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관음법문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했다.



네팔 소식

[카트만두] 매년 7월 5일 구루 푸루니마절(많은 인도 경전을 쓰고 해석한 인도 스승 바이사 푸르니마의 이름을 딴 행사) 때마다 네팔의 힌두교인들은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 날을 경축한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카트만두 센터

동수들은 사랑하는 창하이 스승님께 존경과 사랑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고 스승님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렸다.

내면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세리 사저/ 미국 미시간 (원문 영어)

나는 최근 미국 동부와 중서부에서 있었던 비디오 강연회와 입문식에 참가한 후 많은 내면의 변화를 겪었다. 다음은 그 과정에 관한 글이다.

수행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나는 센터 단체명상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며 늘 센터 일을 도왔다. 그래서 다른 사형사저들은 내가 굉장히 신실하고 수행도 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내 명상은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나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센터를 방문한 관음사저는 내 문제점을 즉시 알아차리곤 내게 스승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것을 조언했다. 관음사저와 함께 한 선이 행사를 마친 후 내 마음과

영혼은 깨끗이 정화되어 그제야 나는 관음사저의 말뜻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내 내면이 신실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스승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명상도 평온하지 못하고 행동에 있어서도 내면의 신의 힘과 사랑에 의지하지 못해 걸으려는 열심히 도왔어도 결국에는 이런 신실하지 못한 분주한 사랑을 센터에 가져와 내 자신을 속이고 다른 동수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상호간의 이해로 함께 진보하다

나의 내면의 시끄러운 기운은 결국 연락인과 얽히며 분출되었다. 나는 수행자로서 연락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면으로는 항상 그녀에 대해 결코롭게 생각했다.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어 우리는 같이 일해야 했는데, 수차례의 충돌을 겪은 끝에 나는 내면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말의 거짓된 마음도 없이

성심성의껏 연락인의 일을 도울 수 있었다. 사실 스승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거나 가르침을 펼 필요가 없으시다. 스승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돕고 우리의 수행 등급을 높일 기회를 주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동수들은 누군가와 갈등을 겪으면 만나기를 꺼리거나 단체명상에도 나오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작 진보할 기회를 잃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피안과 이안에서의 스승님과 재회

아름다운 스승님이 꽤 오랜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자 전 세계의 많은 동수들은 스승님을 몹시 뵈고 싶어했다. 그래서 2001년 6월 3일 스승님이 플로리다 센터의 일요일 단체명상 후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스승님이 다음 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소식은 미국 전역에 불붙은 듯이 퍼져나갔다. 제자들의 갈망을 감지하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플로리다 센터에 오는 동수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동수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컨벤션센터에서 대중 강연을 하신 후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입문식을 해 주시겠다고 승낙하셨다. 다음날 스승님과 동수들은 입문자들이 준비한 훌륭한 각국 채식요리를 즐긴 후 전 세계 동수들과 친구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복한 재회

2001년 6월 4일 기쁨과 갈망에 들떠 스승님과 재회하기를 고대하던 각국 동수들에게 마침내 1년이 넘도록 안 보이셨던 스승님이 나타나시자 분위기는 금세 고양되었다. 한국에서 처음 하셨던 금발에 노란 옷을 입으신 스승님은 그 아름다움이 여전했으며, 즐겁고 편안해 보이셨다.

사제간의 질의응답 시간

스승님은 동수들의 질문에 즐겁고도 인내심 있게 답변해 주셨다. 한 질문에 대해 스승님은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은 높은 경지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에 전 세계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곧 이 세상이 환상이며 실존하지 않는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며, 스승의 육신 외에도 내면의 빛과 소리 역시 스승이라고 하셨다.

다음날, 스승님은 점심 시간 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 식사하는 동안 한 사제가 국제선을 열어달라고 청하자 스승님은 당신이 플로리다 센터에 계시는 동안에는 누구나 스승님이 계시는지 센터에 물어본 후 직접 뵈러올 수 있으며, 꼭 국제선을 열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 각자 자신의 센터에서 선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스승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흔쾌히 받되 두뇌의 욕심에서 나오는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동수들의 질문에 대해 스승님은 영적인 내용과 무관한 일부 질문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마치 스승님께 던져진 조약돌처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조약돌은 작아도 고통을 줍니다.” 또 장주나 관음사가 되고 싶다는 종류의 질문들은 수행상담소에서 답해줄 수 있고, 스승님의 주의를 끌기 위한 질문도 하

지 말라고 부탁하셨다. 그런 질문들은 스승님의 등급을 끌어내리는 일이며, 스승님은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혜안을 축복해달라는 부탁에는 이렇게 일깨워주셨다. “여러분은 항상 축복을 받고 있으므로 물리적인 접촉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런 물질적인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스승님 곁을 떼지어 따라다니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부탁하셨다. 그러면 보다 자유롭게 당신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 곁에 가실 수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가장 필요한 곳을 축복하실 수 있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 “신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신이 우리의 요구를 모른다면, 신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스승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가피력을 만들라고 강조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라고 끊임없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될 것입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의식을 고양시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라고 격려했다.

자상 천국

폭염에 가까운 플로리다의 날씨에 대해 스승님은 열기가 우리 육체의 한계와 독소를 연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의 집은 센터보다 훨씬 커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재삼 강조하시며 그곳에서는 수많은 차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스승님이 멀리 계셔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플로리다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터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희망을 수차례 나타내셨다. 몇 년 전 구입하신 1천 에이커의 땅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개발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며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은밀하고 보호된 바다 인접지역을 원하셨다. 명상하다가 기운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수영도 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바다를 통해 영성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농담하셨다. 또한 플로리다가 중국어로 ‘부처의 땅(佛州)’인 것은 매우 상서로운 징조라고 하셨다.

스승님의 동물 친구들

작년 한 해 동안 스승님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개 다섯 마리와 앵무새 세 마리를 데려와 키우셨는데, 동물의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 개의 경우 사람보다 500배나 후각이 예민하므로 동물들이 명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날 저녁 휴식 시간에 스승님은 ‘씨니’라는 하늘색의 예쁜 앵무새를 데리고 나오셨다. 씨니의 원래 주인이 싫증을 내어 버려지자 이를 가엾게 여기신 스승님이 맡아 키우게 되었다.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씨니는 사람들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스승님이 사람을 싫어하냐고 물으시자 씨니는 즉시 “꼭 그렇지 않아요”라고 응답했다. 스승님과 씨니가 대화하

는 모습은 참 정겨웠다. 긴장이 좀 풀려 몇 가지 재주를 피운 씨니에게 스승님이 고맙다고 하시자 “천만에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씨니는 스승님에게 과일 이 있으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애교를 부린다고 한다.

스승님은 우아한 하얀 앵무새는 이 파란 앵무새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셨다. 그는 종종 햇대에 앉아 개들을 내려다보며 “웃긴 개들이군!”이라고 말하는데, 스승님이 같이 놀아 주는 시간이 부족하면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한다.

스승님은 또 렉키라는 흰 개를 데려오셨는데, 스승님이 그 개를 보셨을 때는 원래 다음날 안락사 당할 처지였다. 그래서 동물 보호소의 사람들이 그 개를 보고 “정말 운도 좋은 개(렉키)”라고 했다. 스승님은 근처에서 가장 뛰어난 수의사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자비롭게 배려하셨다.

스승님은 렉키가 집안에서 혼자 놀도록 온갖 재미있는 장난감들을 방안에 놓아 두었지만, 렉키는 문 옆에 앉아 스승님의 관심과 사랑을 끌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다. 렉키는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그 무릎에 앉아 마치 삼매에 든 양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렉키가 스승님이 보이지 않으면 슬퍼지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관음법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스승님은 동물들이 말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능하며 인간보다도 사랑을 잘 주고 느낀다고 하셨다. 심지어 지금 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동물 보호소 운영을 검토하시겠다고 농담하셨다.

스승님과 만남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또한 빨리 지나가기도 한다. 스승님 역시 우리를 두고 가시기 어렵다고 하시며 우리 모두는 곧 가지를 뺀 열매를 맺을 작은 나무와 같다고 덧붙이셨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라고 당부하시면서 스스로를 잘 돌보고 즐겁게 지내면서 다음에 다시 보자고 하셨다.

내면의 영광을 일깨우자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강연



화창한 2001년 6월 23일 토요일, 태양도 스승님의 프레스노 컨벤션센터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듯 했다. 이곳은 중부 캘리포니아의 산 호아킨 계곡의 중심지이다. 강연이 시작하기도 전에 수천 명의 동수들과 손님들이 강연장에 몰려들었다.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진이 담긴 많은 포스터들이 스승님의 방문을 알리기 위해 붙여졌으며, 4500석의 강연장은 중국과 일본, 포모사, 캐나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태국, 싱가포르 등 멀리서 온 손님들과 동수들로 가득 찼다.

넉넉한 핑크 색과 크림 색 옷차림에 적갈색 머리를 하신 스승님이 도착하시자 청중들 사이에는 강한 에너지가 흘러들었다. 청중들이 경청한 가운데 강연을 시작하신 스승님은 전날 밤 호텔 방에서 홀로 계시며 약간 외로웠지만 명상을 통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명상을 수행하면 누구든지 쉽게 지상과 천국, 서로 다른 두 차원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셨다.

강연 중에 스승님은 청중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 우리를 도울 것이며 당신이 '만능 해결사'라고 알려 주셨다. 가끔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상사와 직접 통하는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또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겸허히 수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일에 너무 몰두해 우리 자신이 인간일 뿐 아니라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덧붙이셨다.

스승님은 이 세계는 단지 잠시 거처기는 '호텔'이며 이 '인생'이라는 호텔에서는 매일 일하고 대기를

재회 축하 잔치

지불하는데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즉
는 그 순간까지 매일 밤낮으로 대가를 치르지만 그만
한 훌륭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 다른 호텔,
즉 신의 왕국을 찾아볼 것을 권유하시며 원하는 사람
은 누구든지 입문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지막으로 스승님은 당신이 오신 것은 오로지 사
람들이 내면의 보물을 찾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하시며 입문을 통해 우리가 진아
를 되찾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이 행복을 영원히 지니
도록 안내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강연을 마치셨다.

강연이 끝난 후 스승님은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을
가까이서 뵈 수 있도록 청중들 사이로 다니셨다. 스승
님이 강연장을 재빨리 돌아보시는 동안 만면에 웃음을
띤 아이들과 어른들이 환호 속에 스승님을 맞았고 스
승님 역시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며 축복해 주셨다.
또 떠나신 뒤에도 많은 축복 과일과 가피물을 남겨놓
아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셨다. 강연이 끝나고 갈
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입문을 신청했으며 방편법을
신청한 사람도 많았다.

강연에 참석한 많은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이 충
만한 말씀과 에너지가 수천 명의 구도자들의 가슴과 영
혼을 일깨우는 모습을 보며 마치 1999년과 2000년
있었던 유럽 중동, 아시아 강연 때로 되돌아간 듯한 느
낌을 받았다.

다음 날, 스승님과 동수들은 주방팀으로부터 화려
한 만찬을 대접받았다. 다양한 각국의 별미들이 나오
자 배고픈 손님들은 접시 한 가득 음식을 담고 세계 각
지의 동수들과 어울락 전문 음악인들의 활기찬 공연을
감상했다. 식사가 끝난 후 스승님이 우아한 하늘색 드
레스로 갈아입고 나오시자 공연이 시작되었다. 첫번째
공연은 캘리포니아 동수의 생동감 넘치는 중동 댄스였
으며 이어 중국대륙의 어린 동수가 “스승님의 사
랑은 복의 근원”이란 노래를 무반주로 불렀다. 그 후
기타 이중창, 발랄한 무용, 팝송 이중창, 청년 동수들
의 어울락 무술 시범이 계속 이어져 즐거움을 선사했
다. 무술 공연이 끝난 후 스승님은 동수들이 시범을 보
인 보비남(어울락 쿵푸)의 간략한 유래를 말씀해 주시
며 지난 수백 년 동안 자기방어와 문화통일의 한 축으로
어울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셨다.

다음에는 두 명의 어울락 전문가들이 스승님의
시집 ‘잃어버린 기억’을 어울락 전통 일현금과 다현악
기, 대금 반주에 맞춰 감동적으로 낭송했다. 그리고 다
수의 전문 가수들이 아름다운 곡들을 연달아 부른 것
을 마지막으로 저녁 공연이 마무리되면서 축제도 끝이
났다.





영원한 천국의 "호텔"로 들어서라

칭하이 무상사
2001. 6. 23.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컨벤션센터
(원문 영어)

자원봉사단의 만능 해결사

오늘 여러분에게 칭하이 무상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과 청중 웃음) 이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어 나 역시 영광입니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떤 도움이든 들어줍니다. 그녀는 '만능 해결사' 이니까요. '칭하이' 는 사랑의 바다란 뜻이며, '무상사' 는 신을 뜻합니다. 이 분을 돕게 되어 무척 영광이군요. 우리에게 요청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무료로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 자원봉사단의 매니저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단체지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료 근무를 자청합니다. 나는 이 단체에서 인기가 좋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세속의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안 돼, 안 돼! 어쩌면, 아마도” 하지만 진짜 사장님인 신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항상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만 매니저는 너무 오래 근무했거나 너무 안정적인데다 봉급도 많고 모든 일이 잘 되기 때

문에 태만합니다. 그는 오래 근무해서 지금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매니저들처럼 게을러지게 된 것이지요. 아, 이 컨벤션센터의 매니저 에겐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다르니까요.

다시 칭하이 무상사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남성으로 변해 ‘그’ 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할머니나 수염이 길다란 할아버지, 나이 어린 아가씨, 예쁜 공주, 장엄한 왕, 고귀한 여왕,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고통스런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 무상사와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 그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AT&T나 인터넷도 필요 없지요.

(스승님이 단상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계속 있으라고 권한 후 말씀하시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좋군요. 나는 어제부터 호텔 방에서 계속 혼자 있었습시다. 나는 너무 적적하고 복도도 길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 호텔 방을 싫어합니다. 문을 나서도 또 문이거나

방이 나오지요. 외롭기만 한 곳입니다. 영혼은 외롭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외로움이나 갑갑함을 느끼지요. 때로는 냄새도 납니다. 금연실을 얻으면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죠.

내가 명상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한쪽에서 명상하면서 호텔 방을 떠나 다른 곳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숙박비는 내야 합니다. (스승님 웃음) 그런다고 숙박비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대중 웃음) 하지만 이렇게 명상을 하면 우리는 동시에 적어도 지구와 천국, 서로 다른 두 곳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두 곳에서 각기 다른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이 진보하면, 한 행성이려면 그곳의 여러 곳을, 우주라면 여러 행성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있으니 호텔비는 내야 합니다. 몸이 이곳에 있으니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요. 이 육신에는 매일 돈이 들어 갑니다. 태어난 날부터 별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자라기까지 이 육신에는 너무나 많은 돈과 노력, 시간, 에너지 등이 듭니다. 다행히 나는 좋은 회사에 고용되어 제법 괜찮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낭비하는 건 아닌 셈이죠. (스승님 웃음)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임무를 매우 겸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너무 몰두하다보니 가끔은 우리가 인간일 뿐 아니라 아주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포용하고 있으며, 인종이나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감옥, 공산국가, 미국 같은 자유국가 등 어느 곳에 있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진 영혼으로 하는 일이므로 FBI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 몸을 떠날 필요도 없지요. 수행이 높다면 운전이나 쇼핑, 화장,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리고 개나 고양이의 먹이를 주거나 배를 운전하면서 도 그와 동시에 수천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영적으로 날아가 도와줄 수 있지요. 그들도 우릴 볼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순간에 캘리포니아나 산타모니카에서 뱃놀이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힘을 빼앗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힘을 되찾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막아 우리의 진정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무상한 삶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신을 위한 일정량의 시간을 내어 우리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나니”,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한 성경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면에 부처가 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하지만 너무 바쁘면 이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새크라멘토나 이곳 프레스코에 대해 듣기만 한 사람과 그 도시를 직접 방문해본 사람은 전적으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가 신의 자녀라는 말을 듣고, “나도 압니다. 내가 부처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매일 고통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불성, 신성 혹은 무상사가 울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위대한 존재, 진리로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미 자신의 진아를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죽음이나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분 좋고 안전하며 신처럼 성스럽게 느낍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도움이야말로 최상의 도움입니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도와주면 그들은 스스로 돕게 되어 그들의 물질적인 부분도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혹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초기에는 아마 창하이 무상사가 돕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돕게 되고 더 지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부모, 그 윗대 조상들, 그리고 미래의 가족들까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문하는 날 그들은 해탈합니다.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는 존재들은 더 자유롭고 의식의 경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성인의 대열에 들게 되어 보다 큰 힘을 가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단지 몸뿐만이 아닌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성령이며, 성전임을 알라! 너희 육신 안에 하느님과 성령이 거하심을 알라!” 고 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모두 읽어 알고 있습니다. 온갖 경전에서도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진아입니다. 그것은 신의 일부이며 온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성령을 알게 되면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저승사자도 우리 영혼을 가져갈 수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눈을 감게 되는 날엔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서 선택한 고향으로 갈 수 있지요. 우리는 어떤 천국에 살 것인지 고를 수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친척이나 친구 곁에 살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아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지요. 생각만 해도 벌써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처럼 비행기 값을 치를 필요도 없지요. (대중 웃음)

이 세상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롭고 위대하니까요! 그래서 때론 명상 후에 “육체”라는 작고 허름한 감방으로 되돌아올 때는 좀 괴롭기도 합니다. 많이 슬플 때도 있지요. 하지만 시간만 여유 있으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작은 몸통 안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보석 보증서’는 무료이며, 언제든 보석 석방될 수 있습니다. 무상사는 오늘 내가 여기 왔으니 여러 달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문해도 좋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까요.

수행의 때를 놓치지 말라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란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요가수행자의 전기인데 읽어보셨습니까? 읽지 못했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신의 위대한 본래면목을 찾고 고귀한 생각을 갖도록 각성시켜 주며 진이를 깨우쳐 여러분의 위대함을 발굴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도 많이 있지만 모두 열거할 수 없군요. 제목도 다 기억나지 않고 기억난다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책을 팔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영성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도 그 중 한 권입니다.

그 책에는 입문하고 싶어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원래 나쁜 의도를 품고 스승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한 스승에게요. 라히리 마하시아였던 것 같군요. 그는 말썽을 일으켜 스승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갔었는데,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스승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좀 보지 않겠나?”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좋아했지요. “그럼, 모두들 일렬로 앉아 앞사람 어깨를 짚게.” 스승의 말에 나쁜 마음을 먹었던 남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잠시 후 한 제자가 어떤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자, 아주 예쁜 젊은 아가씨가 모두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승님이 한 사람씩 그녀의 모습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에게도 물었죠. 그는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그녀를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이건 제 잘못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으면서도 그녀와 외도를 하고 돈을 낭비했습니다. 제 잘못을 아니, 부디 용서해주시시오. 저는 원래 스승님을 음해하고 명성에 먹칠하려는 나쁜 생각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 저를 용서하시고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대답한 남자에게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우선 집으로 돌아가 6개월간 도덕적으로 처신할 수 있다면 입문시켜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입문을 시킬 수 없다.” 그 남자는 스승의 말에 따라 집에 돌아갔지만, 3개월만에 예전의 나쁜 습관이 되살아나 온갖 악행을 하고 다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스승에게 입문을 받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는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호텔이며, 내가 묵고 있는 호텔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많은 일들을 내일로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묵는 곳에서는 숙박비만 내면 편안한

잠자리에 방도 청소해 주고 티월도 바꿔 주고 비누나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하지만 이 ‘인생’이라는 호텔에서는 날마다 일도 하고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해도 여전히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 지식, 그리고 짧은 생명을 대가로 치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힘을 깨닫는 데 사용되어 보다 여유롭게 세상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 지상의 체계는 그만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을 낸다고 해서 좋은 방,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돈을 지불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고통이 더 많습니다.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결혼생활에도 대가가 필요하지요. 이를 유지하려면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도, 아이들이나 근심걱정, 그 밖의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도 계속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자주 병가를 내면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고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린 다시 힘겹게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호텔은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지요. 우리는 호텔을 낼 때 그에 따른 좋은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 호텔은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매일 비용을 지불해도 결코 훌륭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의견을 묻는다면, 다른 호텔을 알아보라고 충고하겠습니다. 좋은 곳을 한 군데 알고 있지요! (스승님 웃음) 아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아주 많은 맨션이 있지만,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가구들과 설비들이 완비되어 있지요. 게다가 빈방도 많아서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갈 필요가 없지만, 보고 오는 건 괜찮겠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수행하면 됩니다. 모두 일이 있으니 한가한 시간에 한 두 시간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이 세상이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일하지만, 우리 영혼과 영적 요구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며, 잠을 자도 그리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아주 상쾌한 기운과 힘이 생겨 나중엔 산도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든 항상 준비된 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곳에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 고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겁니다! 표현이 과격했다면 양해하세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천국,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방문해본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시라도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임상학적 사망’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이생에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지요. 그들은 빛을 보고 천국에서 예수와 부처를 만나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원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의 참된 완전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처럼 보이거나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라면 바로 구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늘 실망으로 끝납니다. 이런 느낌이나 마약이나 술 같은 것들은 기분을 좀더 좋게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환상의 대체물일 뿐 진짜가 아닙니다. 나중엔 오히려 기분이 나쁘고 정신과 신체를 좀먹어 가족의 근심이 되지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나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 친구, 여러분을 아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전해줄 수 있지요.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영혼은 이 사랑을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가졌으며 우리가 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달리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청중: 천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에서 왔습니다. 신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이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신은 우리의 유일한 친구이며 이 지상의 생물, 무

생물, 그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온 우주에도 그대로 적용되지요. 신은 우리의 행복, 진아의 근원이므로 신이 없다면 항상 이 어둠에서 헤매게 됩니다. 찾을 길이 없는 이 행복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요. 가장 행복한 관계일지라도 어딘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속된다고 해도 너무 많은 노력과 타협, 고통 등을 치러야 하지요. 그러나 천국의 행복과 우리 내면의 진정한 행복은 영원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입니다.

그것을 찾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TV 앞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여러분 내면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알려 주겠습니다. 모두들 매일 몇 시간은 쉬잖아요? 그렇게 한두 시간 쉬는 동안 여러분은 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안다면 아주 쉽지요. 달리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앉아, 이틀테면 피곤할 때처럼 이렇게 앉아서 (스승님이 의자 뒤에 기대사) 눈을 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집중하면 됩니다. 어떻게 앉든, 다리를 허공으로 뻗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이란 호텔은 영원하지 않다

신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아이니깐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외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지요.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윤회하게 됩니다. 재생용지처럼요! 사람들은 때로 이 재생용품을 모아 다른 형태로 만들어 내지만 원재료는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계속 윤회하여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나마 오래 머물지도 못하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 세상은 호텔입니다. 내가 호텔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다림질하고 장신구를 여기저기 두어 완전히 집처럼 꾸민다해도, 나는 그곳이 내 집이 아니란 걸 압니다. 며칠이면 떠나야 하니까요.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지만, 이곳이 집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집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방금 ‘집’에서 와서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행하면 새 집, 우리의 진짜 집인 천국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 이 물질 세계에 돌아와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고 간다고 해서 정말 어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군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 인생이라는 호텔에서 일을 해도, 내가 내 방을 장식하듯이 어떻게 그 방을 꾸미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침대손질 같은 모든 것을 혼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번거롭게 하지 않지요. 그리고 떠날 때면, “자, 이제 청소해도 됩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나는 찾기 쉽도록 물건을 여기저기 놓아놓고 꾸미지만 그 순간에도 그곳이 내 집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리 진정한 집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항상 이 세계에 집착하고 고생스럽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지킬 수 없게 되면 더욱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집착하면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직장, 집을 잃고 지살을 하고, 소유욕으로 병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자상이 아닌 천국에 보물을 쌓으라

인터넷에서 농담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마초 드네로(스페인어로 ‘돈 많은’이란 뜻임)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죽게 되자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싶어했지요. 돈도 많고 금도 많았지요. 그가 집안에 차곡 차곡 쌓아둔 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말했어. “그건 안 돼요! 이걸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번 것은 이 세상 것이니 떠날 때가 되면 남겨놓고 가야해요. 빈손으로 가야죠. 공수래공수거잖아요!” 그러자 그 남자는 너무 속상해서 저승사자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제발, 신이나 칭하이 무상사께 내가 금을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난 그것이 정말 필요

해요. 평생 그것을 위해 일했는데 두고 떠날 순 없어요! 제발!”

저승사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어리석은 남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좋아요. 신께 여쭙 보지요.” 신은 이 가련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말했어요. “좋아. 가져가라고 해라.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 그래서 죽어가던 남자는 큰 가방에 최대한 많은 금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때 숨이 끊어졌지요. 그가 죽어서 금 가방을 들고 천국의 휘황찬란한 대문에 이르자 성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속에 든 게 뭡니까? 지상의 것은 아무것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칭하이 스승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그가 대답하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한번 알아보지요.” 그래서 그가 스승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이 사람이 지상의 물건을 가져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요, 불쌍한 사람이니 그냥 들여보내세요.”

베드로는 돌아와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허락을 받았던군요. 하지만 그게 뭘지 한번 봅시다.” 그 남자가 가방을 열어 보이자 베드로는 안을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것이로곤! 도로 포장재를 가져왔네!” (대중 웃음과 박수) 이해했나요? 좋아요, 어린이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천국에서는 금으로 길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는 벽이나 길을 만드는 데 쓰지요. 그러니 우리는 금, 다이아몬드, 루비로 된 길을 걷게 됩니다. 나무들도 모두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지요. 나뭇잎이나 모든 게 보석처럼 보이지만, 딱딱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름답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날카로움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금, 다이아몬드인 것이지요.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는 상처를 내고, 영원하다지만 그렇진 않아서 때론 부서지기도 합니다. 천국의 다이아몬드나 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곳은 바로 그런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궁전과 자유, 사랑, 자비의 근원에서 왔지만, 지금은 고통스럽고 불쌍하며 무기력한 이 인간의 몸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지요. 우리 내면에는 “너희의 보물을 땅이 아닌 천국에 쌓으라”고 한 보물이 있으니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 즉 천국의 보물,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보물, 내면의 진아의 영광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여기 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자이를 되찾도록 시간을 마련해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질의응답

질문: 스승님, 관음법문은 우리 내면의 빛과 소리에 집중하는 것인데, 장님이나 귀머거리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하니까?

스승님: 아! 이것은 외부의 빛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빛과 소리이며 신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눈이나 귀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장님도, 귀머거리도 신의 왕국을 들을 수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건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질문: 스승님, 깨달음이란 모든 존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며, 깨달은 스승의 역할은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부처나 구루 나낙(시크교의 1대 교주) 등 많은 스승들이 고행을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즉각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었습니까?

스승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신청해보세요. (박수)

질문: 스승님은 깨달은 존재로서 진아를 찾고 평화와 기쁨을 얻으셨는데, 아직 무명 속에 잠들어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들이 스승님이 알려 주시려는 법문을 거절하거나 무시했을 때,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스승님: 아! 그들은 나름대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으로 돌아가든, 계속 이곳에 남든 선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될 게 없지요. 그냥 놔두세요.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 인내하며 살면 됩니다.

질문: 스승님, 저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고기를 먹입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나에게 묻지 말고 당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물어보세요! (대중 웃음과 박수) 나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인생에서 뭘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동료수행자들은 채식을 먹이는데, 다들 괜찮습니다. 나도 개를 다섯 마리 키우는데 모두 채식을 합니다. 모두 아

주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보기도 좋습

니다.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고

양이에게도 채식을 먹였는데,

모두 괜찮았어요. 불평이

없지요. 애완동물 가게에

도 개나 고양이를 위한

채식사료가 있으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개들에

게 “위송(채식사료의 상표)”

를 먹이는데, 꽤 괜찮습니

다. 하지만 지금은 사료 대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나는 음식을 많이 해서 개들에게 먼저 먹

이고, 남으면 내가 먹습니다. 처음엔 개 사료를 먹다

가 나중에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 본 뒤로는 사료를 먹

으려 하지 않더군요. 음식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건

뭔가요?” 하듯이 날 쳐다봅니다. (대중 웃음) 그 다음부

터는 매일 음식을 줍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만 사

료를 주는데, 그럴 땐 내 기분을 생각해 먹는 시늉만

하고 주방에서 나올 진짜 음식을 기다리지요.

질문: 스승님, 스승님께서 이 세상의 발명품과 아이디어들이 다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제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문해서 수행하면 좀 나아질까요?

스승님: 그럼요! 좀더 나은 쓰레기를 발명하겠지요! (대중 웃음) 나는 정말 그것이 쓰레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 말은 이 세상의 아무리 뛰어난 발명품도 보다

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는 뒤쳐진 물건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만큼 발달되지 않았으니 이런 쓰레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발명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질문: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채식을 해왔지만 계란도 먹었는데, 입문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 예, 문제없어요! 이제부터 먹지 않으면 됩니다. 계란은 부정적인 힘을 모아 수행의 진보를 더디게 하지요.

질문: 스승님, 신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승님: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다”라고 했잖습니까?

(대중 박수) 차이는

예수는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육신으로서의 그를 보

지만, 그 안에 있는 신

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

서 신과 예수가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사실은 신이 사람

들에게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

주기 위해 예수로 나타나신 겁니다.

질문: 스승님, 왜 육신의 병이 있는 겁니까? 일종의 가르침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야 하나요?

스승님: 질병은 우리 영혼, 감정, 신체의 이상에서 옵니다. 어떤 질병(disease)은 영적으로 ‘불편한(dis-ease)’ 상태거나 감정적인 불균형, 신체적인 불편함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것인지 살펴봐야 하지요. 대개의 질병은 업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몸을 잘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차에 연료를 보충하고 광을 내고 씻어 주고 오일을 갈고 수시로 기름을 넣고 정기점검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가 잘 작동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는 비타민을 먹고 휴식을 취하거나 요가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문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요가단체를 찾아 최소한 요가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좋은 영화를 보면서 잘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적할 때는 비타민 B12를 보충해 주세요. 비타민은 우울증에 좋다고 하는군요. 종합비타민은 우리 생활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양가 없는 음식만 먹으면서 차가 잘 굴러가길 바랍니다.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차가 달리지 못하듯이, 우리 몸 역시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과일, 야채 등 좋은 음식이 필요하지요. 매일 영양이 없는 음식만 먹는다면 균형이 깨져 육체에도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질문: 스승님, 입문하고 나선 세속의 부와 재산, 돈이나 보석 같은 것을 버려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스승님: 당신이 그러고 싶다면요. (대중 웃음) 깨달음에는 그런 많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몇 시간만 내면 될 뿐, 그 무엇도, 돈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그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면서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명상하며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어요! (대중 박수)

질문: 스승님, 5계에 나오는 사음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동성애도 포함됩니까?

스승님: 사음이란 이 육체적 행위에만 너무 몰두해 영적 수행을 등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인 사람을 사랑한다면 수행 역시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금지된 것이 아니지만, 사랑이 있어야 하며 성적인 관계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성관계만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문제없지요. 남녀간이든, 여성간, 남성간이든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함께 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성관계만을 원한다면 그건 육체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감정적인 전개나 영적인 고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만족스럽지도 않을뿐더러 감정도 저조해

스스로 나쁘다고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사음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는 등의 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해선 안 됩니다. 성(性)은 신의 선물이므로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행위에는 사랑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분도 훨씬 좋고 훨씬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행을 한 후로는 대를 잇기 위해서 아주 기금 이런 육체적인 행위를 합니다. 아, 얘기가 너무 벗어났군요. (대중 웃음) 여러분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대중 박수)

질문: 스승님, 24년을 명상했는데도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일로 몹시 상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승님: 어떤 명상을 했나요? 24년 간 했다고요? 그건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그 땐 아직 법을 전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이제 15년 정도 됐지요. 사실 명상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닙니다. 이혼은 인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꽃들도 내일이면, 혹은 다음 주쯤에는 시들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제각기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이 죽는 날까지 이어지면 다행이지만, 수십 년 정도 더 지속되는 것뿐이지요. 24년이건 44년이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에요. 결혼생활의 길고 짧음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달리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남자를 찾아보세요! (대중 웃음과 박수)

질문: 스승님, 전 14살이에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강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너무 힘듭니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스승님: 해줄 말이 별로 없군요. 정말 안 됐습니다. 당신은 착하고 강한 딸이니, 계속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신에게 내면으로 강해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입문하고 수행을 하면 수퍼우먼처럼 느껴질 겁니다!

질문: 스승님, 입문에 왜 나이제한이 있는 건가요? 그들이 적합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입문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인가요?

스승님: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전 과정을 다 끝낼 만큼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어린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요. 그래야 부모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부모의 의사에도 어긋나지 않게 되니까요. 이 세상은 이처럼 물질 법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질문: 만일 오늘 입문해서 어떤 이유로든 수행을 하지 않거나 그만둔다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합니까?

스승님: 수행을 중단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바로 이혼했다는 것이죠!

질문: 스승님, 제 수행이 진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승님: 알게 됩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당신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듯이 말입니다.

질문: 스승님, 깨달음이란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켜 완전히 신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을 뜻합니까?

스승님: 예, 같은 겁니다.

질문: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는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수행을 원치 않을 때는 모든 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질문: 스승님,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계속 기도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입문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 나 역시 카톨릭신자예요!

질문: 스승님, 오늘 입문하면 아이들을 위해 고기를 요리해 줘도 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스승님: 괜찮습니다. 수행하면서 한동안 그 냄새를 참을 수 있다면요.

질문: 우주에는 인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미 저 지른 과오를 없앨 수 있습니까?

스승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과 지혜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 스승님, 제가 이미 깨달은 선사에게 배웠다면, 스승님과 그 선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여러 스승께 배우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승님: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스승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스승에게 당신을 가장 높은 경지로 데려갈 수 있는지, 이 물질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계까지 수행하는 동안 내 옆에 있어줄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서 입문하십시오.

질문: 스승님, 저는 빛과 소리를 전수하면서도 그 제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스승들을 봤습니다. 그 제자들은 길을 잃거나 대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스승님의 인도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스승님: 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바로 알 수 있지요. (대중 박수)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질문: ‘신과 나는 이야기’란 책에서는 지구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시 천국에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경지를 낮추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약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닌가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곳에서 천국을 체험했습니까? 거기 앉아서도 천국이 보이나요? 그럴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 비행기, 공원, 슈퍼마켓 등 어디서든 볼 수 있지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디를 봐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려 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박수)

질문: 스승님, 저는 간호학과 의학용어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생물실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학위를 딸 수 있는데, 동물과 식물을 죽여서 비교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죽이는 건 폭력이고 저는 급우들이 동물을 죽이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요. 동물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전공을 바꾸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전공을 마치고 싶습니다.

스승님: 전공을 수료하고 싶다면 스스로 답을 한 셈이군요. 동물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죽이지 마십시오. 급우들이 살생을 하는 건 그들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뜻을 강요할 수는 없지요.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계속 공부하세요. 그들에게는 동물을 죽이기 싫으니 보기만 하겠다고 말하세요.

질문: 스승님은 환각제를 이용해 영적인 체험을 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어떤 마약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여기(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시다)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마약이 필요한가요? 나의 법문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무엇을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우므로 우리 정신과 육체에는 더 이상 혼란을 주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마약은 결국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진 모두 아는 사실이지요. (대중 박수)

질문: 만일 슬픔이 없다면, 천국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을 충분히 맛보았으니 이제는 행복을 누릴 때입니다.

질문: 관음법문은 선과 유사하니까? 둘 다 수행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승님: 어느 정도 수행하면 관음법문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전에 선을 배웠는데, 예전의 진정한 선은 관음법문이었습니다.

질문: 제 아들과 남편이 오늘 입문합니다. 그들이 오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세요.

스승님: 아, 그래요? 아직도 내 조언이 필요하다면,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설명에 이미 나와 있는

니, 그들이 수행을 선택했다면 지킬 것입니다.

질문: 복제 인간이나 다른 복제된 생명체 역시 신의 창조물입니까?

스승님: 당신은 내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길 바랍니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질문을 하는군요. 나는 창조의 결정권을 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내 답입니다. 인류의 기술 과실로 이 지구는 이미 인구과잉과 광란, 재난들로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창조력을 신의 손에 맡기겠어요.

농담 하나 더 들려줄까요? 이진 영적이진 않지만 여기에 아주 적합하군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행기에 관한 너무 많은 문제점과 충돌 사건 등에 대한 기사를 본 후 사람들은 탑승거부 시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충돌로 기내에서 폭발될까봐 몹시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과학자 팀과 함께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와 컴퓨터로만 조종되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이 비행기가 완성되어 첫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객 전원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인간의 음성과 비슷한 컴퓨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세계 최초의 무인조종 비행기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에 우려했던 인간의 실수는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편안히 앉아 쉬십시오.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생기지 않을생기지 않을”(대중 웃음)

질문: 스승님, 스승님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스승님: 그냥 둡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라지지요. 부정적인 것과 계속 싸우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세요. 보다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아니면, 명상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질문: 스승님, 살생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집에 서식하는 벌

레나 곤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들은 병을 옮기고, 옷이나 음식을 오염시키는데요.

스승님: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들어온 후에는 좀 늦습니다. 물과 식초를 반반 섞어서 집을 청소하세요. 그러면 살균도 되고 냄새도 없애며 곤충들을 끌어들이는 냄새도 지울 수 있습니다. 벌레가 들었던 물건은 모두 깨끗이 씻어 햇볕을 쬐고 털어내고, 매일 혹은 자주 물과 식초를 반씩 섞어 청소하십시오. 냄새를 참을 수 있다면 식초를 좀더 타세요. 그리고 집밖에서 창틀이나 문틀에 무독성 방충제를 뿌려두면 벌레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들어오겠지요. 일주일에 한번이나 가끔 방충제를 뿌려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깨끗이 씻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충들이 번식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질문: 스승님, 태어날 때 이미 아이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과 나쁜 영향들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제력이나 부드러움이 부족하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적절한 가르침과 영적인 도움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질문: 스승님, 우유와 치즈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소를 매우 잔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성장호르몬이 함유되어 있고 많은 치즈들이 죽은 소의 위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보다 철저한 채식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스승님: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극단적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질문: 스승님, 제 아내는 약 1년 간 채식을 해왔는데 임신한 한 뒤로는 고기나 달걀을 먹고 싶어합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스승님: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동수인가요? 방편을 하고 있군요. 좋아요.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 탓을 하다니, 아기가 불쌍하군요! 어쨌든 그녀는 방편법만 수행하는 중이니 채식을 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음가족은 모두 자유허적이니 까요, 여러분이 고행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길

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좀더 빠르고 순조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점을 알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결혼을 하는 등 모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도 나는 괜찮아요.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질문: 스승님, 입문하면 5대에서 7대까지 구원받는다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스승님께 입문하는 사람과 같은 경지로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지에 있게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입문자는 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스승님: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경지에 있게 됩니다. 그건 그들의 내면의 신심이나 업장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입문자는 자유롭지요. 누구를 언제 어디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내 말은 그들이 죽은 뒤에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가족친지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각자의 경지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문한 사람은 여러 경지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영성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수라 세계에 있고 여러분이 그보다 1단계 높은 창조의 세계에 있다면, 여러분은 동시에 그 두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지가 어디든 여러분은 1개 이상의 경지를 거치기 때문에 원한다면 다른 경지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곁에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은 한 차원 높은 세계에 존재하므로 그곳의 존재들 역시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국가에서는 상실감이나 부족함, 괴리감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르지요.

질문: 스승님, 우리가 깨달아 예수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도 더 높은 경지가 남아있습니까?

스승님: 그럼요. 많은 경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일반적인 스승의 경지일 뿐입니다. 아직도 많은 높은 경지들이 있으므로 원하는 곳은 높고 낮은 경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승의 경지에 도달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질문: 스승님, 천국에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 세상의 영혼에게도 궁전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제 생각엔 육체에게만 궁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은 이 세상에서 흔치 않기 때문에 귀하지만, 천국에는 많은데도 귀하나요?

스승님: 거기서는 아무도 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쩌다 거기 있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길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경지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나며 진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세상과는 다르지요. 그곳의 금은 이 세상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마치 큰 부잣집에 가면 그곳의 물건들은 모두 부유하고 화려한 것처럼 말이에요.

질문: 스승님, 사후 장기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주고 싶은 것은 주면 됩니다. 돈을 주는 것처럼요.

질문: 왜 신은 우리가 본래부터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 인간세계에서 온갖 시험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스승님: 그건 우리가 재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유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매년 항상 휴가를 갑니다. 호화로운 주택에는 하인들이 넘쳐나지요. 그러나 휴가를 가면 무엇을 하나요? 너무 작아 가난한 사람의 집 같은 초가집을 빌리고 땀벌에서 땀흘리며 배를 젓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이를테면 달까지도 달릴 수 있는 수천 달러 짜리 엔진이 달린 요트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재미만 있으면 무엇을 하든 문제될 게 없지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완전한 자이를 깨닫습니다. 상대적인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은 우리에게 진아와 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마치 여성의 창조로 남녀의 구분을 알게 된 것과 같은 이치지요. 비교할 게 없다면 우리의 진아를 몰랐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중 박수) 좀 전의 그 부자처럼 말이에요. 그는 태양 아래 땀흘리며 배를 젓고 허름한 집에서 간소한 생활을 하다가 1달 뒤 요트와 전용 비행기,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궁전 같은 집으로 돌아가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몹시 기쁠 겁니다.

질문: 스승님, 저는 고향으로 갈 준비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스승님을 존경하고 명상하고 신을 알고 싶지만, 반면에 이 생에서 제 자신의 재능과 기술, 능력을 키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아직 고향에 갈 준비가 안 된 것인가요? 제가 입문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스승님: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건 멋진 일입니다. 입문하기 위해 당신의 능력과 재능을 다 잃고 슬프고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깨달음을 구한다면 그게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온갖 축복을 누리면서도 신을 알고자 한다는 건 당신이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성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 스승님, 만일 입문한 사람이 조금 수행하다가 포기하고 몇 년 뒤에 죽는다면, 다시 이 세상에 윤회하게 됩니까? 아니면 스승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 가시나요?

스승님: 스승과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창하이 무상사는 그를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 숙녀에겐 불가능이란 없지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대중 박수)

질문: 강제입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란 구절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끗이 벗어 버리고 마음과 몸, 감정에 배인 모든 과거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문한 후에는 스승이 여러분의 업장을 불로써, 영적인 축복으로 씻어 주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즉각 천국을 볼 수 있지요.

질문: 스승님께선 업장이 우리 자신의 도덕기준과 경험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도덕기준이 없거나 나쁜 일을 하고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업장은 줄어들니까?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 과거의 나쁜 행위들을 잊어버렸다면 업장이 원래보다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스승님: 정말 멋진 변명이군요! (대중 웃음) 은행을 털고 경찰에게 말해보세요. “금방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당신 지문과 감시카메라에 당신 얼굴이 남아 있는데도 경찰이 믿어 주겠습니까? 신을 속이는 고도의 기술이긴 하지만, 성공하긴 어

럽습니다. 우리 성격이나 의도가 어떻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잠재의식 속에 기록되어 수행의 힘으로 잠재의식 속을 지우지 않는 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한 후에는 우리 자신을 되찾아 아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스승님,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남편과 이혼해도 됩니까? 언제가 좋을지 어떻게 압니까?

스승님: 세상에! 남편과 얘기하세요! 두 사람의 의견이 똑같다면 문제가 없겠죠. 더 나은 목적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라면 좋지만, 문제를 화파하기 위해서라면 안 되지요. 다음에 만나는 남자는 더 심한 문제를 안겨줄지도 모르니까요. 이자(업장)가 늘어났으니까요.

질문: 스승님, 동수들이 선삼에서 돌아오면 왜 다르게 보입니까?

스승님: 더 청정하고 순수해지고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질문: 스승님, 제겐 이루고 싶은 다섯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스승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영체로 국제선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육신으로 참여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스승님: 알겠어요. 이틀테면 집에서 “좋아, 내 마음은 선하러 갔다”고 말하는 것이로군요. 아주 편리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에 여기 올 때는 나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좋아요,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육신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중: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 셈이군요. 세상에, 정말 멋진 생각이군요!

질문: 스승님, 저는 79세인데,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플로리다에서 스승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최고로 좋은 날이었지요. 감사합니다. 너무 나이가 많다고 누차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입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스승님, 입문시켜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당신은 아주 건강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군

요. 내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해도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방편법을 하세요, 그것도 굉장합니다.

질문: 스승님, 저는 중국 본토에서 온 제자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스승님을 뵈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중국제자들을 대표해서 스승님의 영원한 행복과 아름다움을 기원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묻곤 하는 내용입니다. 서양인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은데 스승님과 함께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인류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스승님: 당신이 있는 곳에서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곧 세상에 봉사는 것이며, 또한 나와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행은 꼭 육체적인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같은 이상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엔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여행을 하면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고 당신의 사회는 근면하고 성실한 구성원을 하나 잃게 되니까요. 집을 지을 때는 많은 벽돌이 올라가 구조를 이룹니다. 그 중 한 개가 빠져도 상황이 달라지지요, 그러니 당신이 사는 곳에 머물며 성인이 되십시오.

질문: 스승님, 마왕과 인과의 교주는 사람들을 이곳에 묶어 두기 위해 같이 협력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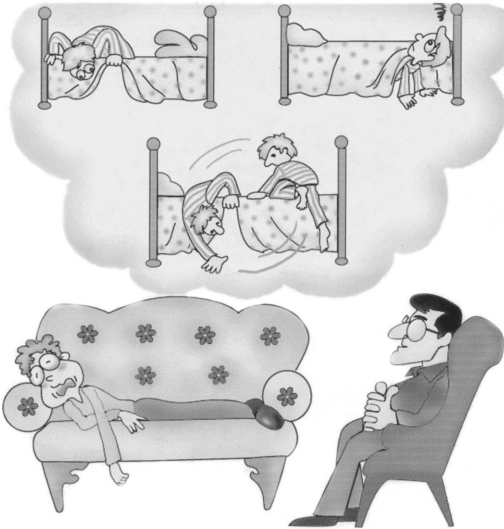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이며 똑같습니다. 그들은 좋은 존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요. 진아를 찾기 위한 여러분의 결심을 굳혀 주니까요.

질문: 오늘 입문하면, 곧바로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까?

스승님: 당연합니다. 즉각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상이 지옥에 있던 고통과 지옥을 벗어나 높은 경지로 가게 되지만,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아내는 훌륭해!

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 침대 밑에는 꼭 누가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살펴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괜찮아. 이제 침대 밑에 누웠잖아. 아무도 없는 거니까 이제 잘 수 있어” 하고 나 자신을 안심시키곤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제 위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침대 위에 올라가 살펴보면 또 아무도 없고요. 다시 침대 위에 누워 아무도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눕자마자 또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 매일 밤마다 침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잠을 잘 수 없어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요, 도와드리겠지만, 몇 년은 걸리겠군요. 적어도 1년은 상담해야겠어요. 매주 오십시오. 시간당 70달러입니다.” 그 환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세상에나! 너무 비싸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에요. 아무래도 아내와 상의해봐야겠어요. 괜찮지요?” 일주일 후 환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고민이 해결됐어요. 병원에 안 가도 되겠는데요.” 의사가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자,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내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침대 자리를 잘라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제법 괜찮지요! 돈도 아끼고 문제도 해결하다니, 정말 훌륭한 아내입니다. 훌륭한 아내가 있으면 만사형통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여기 가장 좋은 “아내”가 있지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농담을 원문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4/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24/jk1.htm>

우크라이나로 날아간 자유의 새들

관음사자



키예브 대학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에서 참석한 학생들이 스승님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TV를 높이 설치하고 있다



휴일 거리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깨달음에 대해 알고자 한다

“그때 자유의 새들이 사방을 날아다니며 해탈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리라”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21세기 첫번째 봄에 정말 스승님의 관음법문이 전단(flyer)의 날개를 타고 이전 소련의 일부분이었던 우크라이나로 날아가 그 국민들에게 이 해탈의 복음을 전했다.

<주>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이상한 새들이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라고 공중에서 울 것이다” 라고 했다. 이 ‘이상한 새들’은 세계 각지에서 스승님이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배포하는 전단을 의미한다 : 살아있는 동안(바로 지금) 신을 만나라 - 즉각적인 깨달음 (바로 지금) -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 일세해탈(바로 지금). (자세한 내용은 108호 참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의 황혼은 실로 매혹적이었다. 아직 도심에 쌓인 눈들이 거의 녹지 않은 4월, 사람들이 추운 날씨 탓에 두터운 외투로 몸을 감싼 가운데 나뭇가지에서는 새순이 조금씩 움트고 있었다. 마침 사순절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채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였다.

키예브 대학 학부에서의 강연

우크라이나에서 손꼽히는 키예브 대학은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홍(紅)동과 황(黃)동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오고 있다. 황동에 해당하는 국립 타라스 쉬브첸코 대학을 방문했을 때 나는 동양학과의 부학장인 세르게이 콜로드코 교수를 만났다. 매우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콜로드코 교수는 베이징에서 3년 간 유학을 해서 중국어가 유창했고 우리는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이 대학의 커리큘럼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쳐 좋은 성품을 개발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역사 강의 시간에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도록 파격적

인 조치를 취했다. 그 시간에는 스승님이 교수였다!

이 비디오 강연회는 그 학부의 학장이 스승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칠판에 ‘즉각 깨닫는 열쇠’라고 우크라이나어로 분명하게 적으며 스승님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내게 짧은 연설을 부탁했다. 나는 마침 이 대학에서 상영중인 ‘매트릭스’(영화)에서부터 스승님의 유엔강연인 ‘이 세상 너머의 신비’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식인 스승님의 활기 넘치는 유머를 강조하자 학생들은 완전히 몰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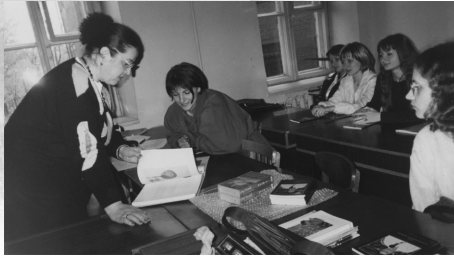
강연회가 시작되기 전, 한 여학생이 초조한 기색으로 달려와 “너무나도 명상을 배우고 싶은데, 지금 가르쳐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물었다. 그녀는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강의실이 만원을 이루자 열성적인 학생들은 모두들 옆 강의실에서 의자를 가져

와 TV를 높이 올렸다. 학생 대표는 “모두들 스승님을 더 잘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이끌 어갈 이 인재들은 평균 18살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선두 주자가 되었다. 비디오를 보는 동안 주의를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쁜 마음 마음이 들었다.

90분짜리 비디오가 곧 끝나자 떠나기 아쉬워하는 많은 인파들이 앞으로 나와 진심에서 우러난 말들을 했다.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이제껏 이런 것을 말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줍어서 말을 못하던 사람들은 미소를 띠고 다가와 악수로 인사를 대신했다. 군복무 중이었던 일부 학생들은 귀대를 서두르면서도 해탈에 대한 이 예기치 않은 강연 참석에 몹시 기뻐했다. 그들은 내게 채식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해왔다. 내가 준비해 온 견본책자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며 모두 가져가 버렸다. 비디오 강연 동안 잠깐 쉬고 있던 담당교수 역시 내가 떠날 때 악수하며 말했다. “학생들이 정말 이 수업을 좋아하더군요!”

의외의 소득

그 다음 일요일에는 보통 교통이 정체되는 키예브의 중심가인 크리셰티크의 모습이 바뀌었다. 여유있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고,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젊은이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들, 거리를 수놓은 색색의 풍선들로 마치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 같았다! 사정을 알아보자 “봄맞이, 우리 도시를 푸르게”라는 주제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관음법문은 영혼을 푸르게 하는 힘인데,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할 이 기회를 어찌 놓치겠는가! 갑자기 떠오른 영감에 나는 최대한 빨리 전단지를 인쇄하고 아름



명성 있는 우크라이나 예술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스승님의 예술창작 앨범을 감상하고 있다.



스승님의 견본책을 몹시 좋아하는 국회 도서관의 사서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올레나 포그레브나 여사)

다운 금장 중국식 매듭이 들어간 스승님의 포스터를 가로수에 걸었다. (금색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좋아하는 색이다)

한 노부인은 금발의 스승님 사진이 담긴 잡지표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영어는 모르지만 그 사진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가 그 잡지를 가져갈 수 있는지 물었지만 한 권뿐이어서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간 얘기를 나눠 보니 그녀 역시 명상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가 깨달은 스승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

의 타고난 아름다운 백금발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이 스승님의 금발 모습에 호감을 갖는 것을 보고는 스승님이 금발로 염색하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깨달은 스승의 행동은 모두 온 중생을 위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몇몇 중국인들은 동양인의 모습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춰 스승님의 중국어 출판물을 읽기도 했다. 오랫동안 고향에서 떠나온 그들은 중국의 사정에 대해 너무도 궁금해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자 그들은 몹시 감동하며 말했다. “이 먼 곳까지 해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기쁘군요!” 그들은 또한 관련 영성 매체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알려 주며 스승님의 가르침이 TV에서도 방송되길 희망했다. 여러 열정적인 숙녀들은 스승님의 법상을 보고 키스를 날렸다. 한 남자는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외쳤다. “저는 명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는 견본책을 갖고 기쁜 모습으로 떠나갔다. 지나치던 사람들은 ‘명상’과 ‘깨달음’이란 글자와 소리를 듣고는 되돌아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 어느새 보름달이 중천에 높이 떠올랐다. 그날 행사는 불꽃놀이로 절정에 달했다. 신

기하케도 많은 군중들이 나의 의외의 소독을 축하라도 하듯이 화려한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해 스승님의 부스 주위로 몰려들었다. 내가 부스를 정리하고 있자 그때까지 스승님의 잡지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기 아쉬워했다. “정말 가야만 하나요?” 그들은 정리를 도와주며 그렇게 물었다.

이번 우크라이나 여행 동안 나는 혼자였는데, 부스에 사용했던 자료들은 모두 베를린과 모스크바의 신실한 동수들이 보내준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견본책자가 도착하자, 내가 머물던 여관주인은 그 소중한 책을 들고는 중얼거렸다. “우크라이나어로 되어 있네!” 그녀는 스승님의 사진 밑에 있는 모국어와 읽고는 몹시 기쁘고 감동받은 모습이었다. 우크라이나, 특히 키예브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 관계자들은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자기 땅을 갖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염원을 알고 계셨던 스승님은 이미 10년 전에 우크라이나어로 된 견본책을 인쇄하도록 하셨다. 비록 이 책자들이 21세기에 들어서야 이 나라에 전해지게 되었지만, 정말 시기 적절한 것이었다.

비디오 강연회

우크라이나 독립 후, 국민들은 외부세계의 정보를 갈망했지만 정부에서 종교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영적 단체들은 소규모의 세미나를 통해 법문을 알린다. 내가 시내 중심가와 지하철 근방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비디오 강연회 소식을 시험삼아 몇 장 게시하자 수행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전화로 물어왔다. 나는 행사 당일 간단한 채식 다과를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행사 내내 협조적이고 조용히 경청한 후 방편법을 배웠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온화함과 높은 질서의식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사람들이 모두 남아 장소를 정리하고, 또한 친절하게도 나를 숙소까지 배려다 주었다. 가는 동안 내내 얘기를 나누며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오직 스승님의 사랑만이 이방인을 수시간 만에 오랜 친구로 만들 수 있다!

기공수련자인 한 의사는 깊이를 기뻐할 수 없이 심오한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고 찬탄했다. 또 이전에 비슷한 법문을 수행하고서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한 참가자는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새로운 영적 희망을 발견하고 언제 입문할 수 있는지 계속 물어왔다.

진정한 예술적 자질



오데사 대학의 교수들과 도서관원들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할 계획인 스승님의 잡지와 견본책자를 운 좋게도 받을 수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한다. 키예브에서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들을 늘 들을 수 있다. 이런 음악적 자양물로 인해 이곳 사람들은 언행이 아름답고 고상하다. 이곳의 예술학교를 방문하자 교사들과 학생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다함께 스승님의 약력이 담긴 비디오를 시청한 후, “수행은 무한한 창조력을 개발시킨다”는 제목의 특별강연 시간을 내게 할애해 주었다. 학생과 교사들은 모두 강의실에서 스승님의 예술창작집을 감상했다. 그들은 감탄의 눈길로 언제 스승님의 원화를 감상할 수 있는지 간절히 물었다.

그 후 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전날 밤, 국회 도서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그곳의 한 책임자인 올레나 포그레브나 여사는 견본책을 보고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즉시 관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국의 크고 작은 도서관에 수백 권을 교부하도록 지시했다.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주요도시인 오데사에 있는 동안에는 오데사 대학과 그곳의 주요 도서관들도 방문했는데, 스승님의 견본책과 잡지들이 큰 환영을 받았다.

영성 고양의 땅 산토도밍고

신의 축복이 카리브해를 비추다

관음사자 (원문 영어)

카리브 섬들 가운데 가장 큰
히스파니올라 섬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로 구성되어
있다. 두 국가는 문화, 언어,
경제적인 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지만, 각 국민들은 열정적이
고 우호적이며 순수하고 개방적
인 생각, 단순한 생활방식으로
인해 자연스런 이끌림으로 영적
가르침을 따른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에는 수많
은 건강식품 상점들과 적어도 여덟 군데의 완전채식
식당이 있으며, 그곳들 대부분이 명상이나 요가, 대
체의학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판에 붙여 제공하고 있
어 이곳에선 높은 이념과 영성이 낮설지 않다. 그래
서 최근 개최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 광고는 순조
롭게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회 전단지를 받
고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에 관해 질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강연회 당일, 행사장의 전 좌석이 만원을 이뤘는
데도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 바닥에 앉아야만 했다. 참
석자들은 영성을 고양시키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주의깊게 시청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을
던져 깨달음과 높은 가르침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나
타냈다. 본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
에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방편법 전수가 끝나자 행사장 분위기는 매우 평화
롭게 바뀌어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나타난 커다란 미
소를 통해 스승님의 축복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한
여성은 열렬한 어조로 언제부터 단체명상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고, 22년 간 완전채식을 해온 한 신사
는 명상 중 빛나는 화신 스승님을 보고 난 후 기쁨에
차 입문을 신청했다.

이 비디오 강연회에 이어 대중의 뜻에 따라 소규
모 강연회도 2차례 개최되었는데, 모두 명상을 배우
려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단
체명상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한 동수가 건
물을 제공했다. 센터가 새로 생겼다는 이 기쁜 소식
이 즉시 이곳 모든 동수들에게 알려졌고 그 다음 주
부터 많은 사람들이 단체명상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들의 영적 충만함과 진정한 스
승의 가르침에 대한 신실한 갈망을 생각해보면, 이 행
운아들에게 스승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린 것은 놀라
운 일도 아니다!

아이티의 밝은 미래

아이티에는 수행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프리카 문화의 일부분으로 음악과 예술, 종교 전통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만나자 자연스럽게 이 영성을 고양시키는 법문에 대해 호기심과 매력을 느꼈다.

스승님과 관음법문과의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자 아이티에 방문했을 때, 이곳 상황으로 1주일만 머물게 되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스승님은 모든 것을 철저히 세심하게 안내해 놓으셨다. 아이티의 국어는 크레올어와 불어인데 나는 영어와 약간의 스페인어를 하는 정도여서 통역이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스승님의 끊임없는 배려로 이 1주일 동안 달리 통역이나 가이드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다. 버스를 타고 산토도밍고에서 포르토프랭스(아이티의 수도)로 떠나기 전날,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자기 교회 모임에 나온 낯선 아이티 사람에게 한 관음사자가 아이티를 여행하는 동안 가이드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하자, 그가 도와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어와 스페인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의 도움으로 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다. 또 호텔에서는 그곳에서 몇주째 머물고 있던 여섯 명의 인도인 일행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채식을 하고 있어서 아이티에서 채식식당을 찾기 어려운 고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식사에 초대해 별도의 주방에서 매일 차파티와 인도 편두 스프를 요리해 주었다. 아이티에서 채식호텔을 찾은 건 정말 행운이었다!

다음 날 스페인어를 잘 하는 호텔 직원이 내가 머무는 동안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는 나를 많은 서점과 도서관에 데려가 견본책과 잡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나중에는 포르토프랭스의 유일한 채식식당에도 찾아가 그곳 주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다행히도 그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내가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라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스승님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캐나다 사제가 아이티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견본책을 두고 갔던 것이다. 그들은 요가명상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게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강연을 열어달라고 초청했다. 그들은 이 나라에 진정한 영적 가르침이 절실히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지난 10년 간 계속되는 빈곤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기반과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연회는 그 단체의 일요일 정기 명상시간이 끝난 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불어 자막이 들어간 스승님의 약력소개 및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채식식당 주인의 친절한 통역으로 진행된 이 시간에는 많은 영적 질문들이 쏟아졌다. 비디오 강연회를 끝낸 우리는 행사를 마련해 준 사람들과 요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그들의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고 다른 스승의 가르침에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칭찬했다. 자리를 뜨면서 불어로 된 견본책과 잡지들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두들 기쁘게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추후 연락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이제 아이티의 미래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 황금시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한층 밝아졌다.



루이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어느 날 수요일 오후, 각 센터로 물품을 배달하는 일을 줄곧 해오던 동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자기 차에 짐이 꽉 차서 천의 두 상자를 실을 수 없으니 1시간 후에 단체명상 장소로 천의를 나를 수 있도록 외주겠냐고 물었다. (그날은 타이베이 센터의 단체명상이 있는 날이었다.) 때 마침 그가 있는 곳에 볼일이 있었던 나는 주저 없이 승낙했다.

천의 두 상자를 차를 싣는 동안, 천의 책임자인 사저는 반드시 6시까지의 파츠의 단체명상 장소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4시에 신디엔에서 약속이 있었던 나는 만나기로 한 사람이 조금 늦게 나오거나 얘기하다 보면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았다. 게다가 신디엔에서 파츠까지는 보통 40분 정도 걸리는데, 5시 30분 경에는 차가 밀리는 시간이라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운송책임자인 사형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동수를 찾아보도록 요청했다. 사형은 여러 군데 전화해봤지만, 달리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래, 내가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보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기자!’란 마음으로 신디엔으로 출발했다.

그 다음부터 계속 기적이 일어났다! 내 고객은 약속 시간보다 빠른 3시 45분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날 얘기는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었다. 얘기를 5시 25분에 마치고 나는 바로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를 몰기 시작했다. 20미터도 못 가 신호등에 걸렸는데 믿어지지 않게도 경찰이 다른 방향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손짓으로 먼저 가라고 했다. 나는 너무 뜻밖이라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내가 맞냐고 하자 그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했다! 나는 빨간 신호등을 보며 통과하면서 계속 물을 따라 유유히 헤엄치는 물뱀처럼 타이베이의 도로를 달렸고 항상 막히던 길도 막힘 없이 갈 수

있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순조롭게 운전하면서 ‘이 길이 오늘은 꽤 한가하군’ 하고 계속 생각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다시 제정신을 찾아 속으로 오불을 외우기 시작했다. 파츠가 가까워지자 나는 사저에게 입구에 나와 천의를 받아가라고 할 요량으로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 어서 도착해야겠다는 생각만이 들었다. 입구에 도착하자 정확히 6시였다. 30분만에 그곳에 도착하다니, 정말 기적이었다! 입구에서도 마침 명상홀로 들어가려는 두 명의 사형을 만나 각자에게 한 상자씩 맡겨 경서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때 사저와 전화연결이 되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천의가 무사히 전달되었음을 알릴 수 있었다.

이후에도 우연의 일차는 계속되었다. 며칠 전 나는 위궤양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는 튀김과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명상홀 맞은 편에서 채식발효두부 튀김요리가 냄새를 풍기며 기특이나 사정했던 내 식욕을 자극했다. 명상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했던 나는 저녁을 먹기로 했다. 또 ‘한쪽 구석에서 먹으면 사형(남편)에게 걸리지 않을 거야’ 하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가 튀긴 두부를 주문했다. 이제 막 맛있는 두부가 도착한 순간,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세상에, 다름 아닌 우리 사형이었다. 그는 내가 보는 면전에서 두부 접시를 자기 앞으로 가져가 먹어치웠다. 내가 씩씩한 심정으로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묻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리며 말했다. “마침 지나가다 봤어! 당신은 튀긴 요리를 먹으면 안 되니까 냉면을 시켜요!”

신의 사랑과 노정표(路程表)는 언제나 이처럼 딱 맞아떨어진다!

기적의 감응 천의

샤오춘 사저/ 중국 본토

2000년 어머니 날, 다행히도 나는 한국 영동국제선에 참석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승님을 다시 뵙고, 스승님의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며 관음가족의 형제자매들과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다. 또 선행사 중 일어난 기적으로 더욱 특별한 선이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쉬는 시간에 천의 보석 전시장을 다니다가 해피요기가 새겨진 주황색 평상복과 흰색 바지를 구입했다. 다음 날 날씨가 서늘해져 새로 산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가에 빠져 나온 알루미늄 조각에 허벅지가 걸려 통증이 심했다. 하지만 좀 지나자 아무 감각도 없어지고 새 바지에도 문제가 없어서 나는 아무 일 없듯이 명상홀로 명상하러 갔다.

명상이 끝난 후 텐트에 돌아온 나는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허벅지에 생긴 길이 6cm, 폭 1cm의 검붉은 상처 양쪽으로 16개의 동그란 자국이 마치 수술자국처럼 정확한 대칭을 이루며 남아 있었던 것이다. 동그란 자국은 더욱 놀라웠다! 상처와 마찬가지로 바늘 자국도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아물어 색깔이 옅어진 상태였는데, 일반 수술자국과는 달리 이 '수술자국'은 아주 매끄러웠다.

이 상처를 보고 나는 스승님께서 천의를 통해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상처를 다른 동수에게 보여주자 동수들은 놀라기는커녕 활짝 웃으며 "잘 났군요, 당신도 신기한 감응이 생긴 거예요!" 하고 말했다.

사실 스승님을 만난 후 내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은 살아 계신 스승을 만나 따를 수 있었던 것이다!

영혼의 고양



창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오디오 테이프

E80 (테이프 5개) <영문>

꿈에서 깨어나라 (1)(2)

2000년 5월 17일 한국 서울 센터 단체 명상

스승님의 바디코드 (1)(2)(3)

2000년 5월 20일 한국 서울 센터 단체 명상

창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5개국어 자막>

세상의 고통은 인류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1995년 1월 10일 싱가포르 강연

<영어 + 네덜 통역 + 중국어 자막>

깨달음과 무지

2000년 5월 1일 네덜 카트만두 강연

창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 + 일본어 통역>

693 지혜와 집중

2000년 5월 7일 일본 도쿄 강연

<영어 + 한국어 통역>

694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

2000년 5월 8일 한국 서울 강연

<영어 + 불어 자막>

333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가

1993년 3월 16일 호주 시드니 강연

699 1부: 과거를 돌아보며

2부: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

<영어 + 체코어 통역 + 불어 자막>

654 무지가 유일한 죄

1999년 5월 28일 체코 공화국 프라하 강연

<영어 + 아르메니아 통역 + 불어 자막>

659 영혼의 전승

1999년 5월 11일 아르메니아 예레반 강연

<영어 + 핀란드어 통역 + 불어 자막>

663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

1999년 5월 30일 핀란드 헬싱키 강연

작은 정원, 성인의 거처

징징 사저/ 중국 후베이성



스승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족과 사회,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창조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한 사저의 정원을 함께 고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산중턱에 나무들로 둘러 쌓인 그 사저의 집 앞뒤에는 작은 단층집들이 차례로 들어서 있고 집 밖은 채소밭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 바쁘게 보내다가 해가 지면 돌계단을 밟으며 돌아오는데,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행복해 보였다. 다만 그 사저의 집은 채소밭과 허수구에 해묵은 쓰레기가 쌓여 있고 뜰에도 허물어진 헛간이 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 조금 보기 좋지 않았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사저와 나는 서로 의논한 후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바꾸기로 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직접 시멘트와 모래, 석회, 벽돌을 산밭에서 날라 왔고 우리 손으로 헛간을 치우고 모래를 치고 시멘트를 섞었다. 이 외에도 채소

밭에 물을 주고 땅을 골라 비료를 뿌리고 잡초를 뽑은 후 모종을 옮기는 일도 했는데, 나중에 동수들이 우리 일에 같이 참여했다. 바쁘고 힘든 외중에도 웃음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고용된 비임문지들도 우리의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잔기와 물이 끊기고 공구와 자재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20일간 노력한 끝에 허술하던 농가의 작은 뜰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정원에 들어서면 먼저 뜰 위에 놓인 연노란 타일이 눈에 띈다. 남쪽 벽에는 시멘트 선반이 정렬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동수들이 가져온 화분들이 놓여 있다. 동쪽 벽 밑에는 작고 귀여운 사계절 장미와 황금색 해바라기가 우리를 반긴다. 그리고 그 옆에 화분 놓는 긴 단에는 생기 넘치는 분재들이 놓여있다. 석회를 칠한 네 벽은 흰색으로 새롭게 보이고 뜰의 서쪽에는 맑은 연못과 야외 아궁이, 부엌, 화장실이 있다. 여기서 멀리 바라보면 뜰 밖은 겹겹이 펼쳐지는 푸른 산, 뜰 옆은 각양각색의 채소밭이며 빨간 지붕과 하얀 벽이 푸른 숲과 대비되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동수들은 이곳에서 불을 피워 요리하고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을 따고 해 질 녘에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여러 날을 보냈다. 달과 별들이 산 위로 떠올라 별빛이 작은 정원 구석구석을 비추면 마치 이곳이 천국인 듯했다.

우리는 종종 정원에 둘러앉아 광대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다가 우리도 모르게 스승님이 생각나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달과 별은 선율에 젖어들고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네
기쁨은 강물처럼 흐르고
저 하늘의 오색 구름은
스승님의 아름다운 노래 같은”
푸르른 이 별은
아름다운 당신 꿈에 잠겨 있



정말 여기서 단체명상을 하면 천국같은 기쁨이 생겨 모두들 이곳을 천국, 무릉도원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뜻이 신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개

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 우주가 도와줍니다” 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분명히 증명한다.

천국은 내 가슴속에 있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곳엔 번뇌도 없고
 그곳엔 슬픔도 없으며
 가슴속엔 기쁨만이 충만하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신이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의 도구라는 걸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내 작은 뜰 안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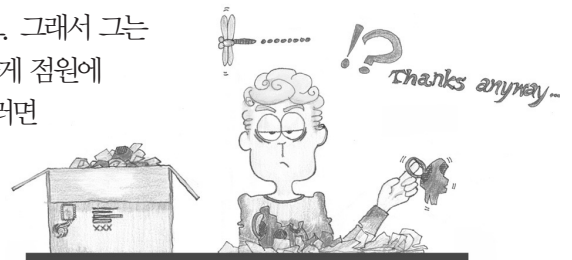
그곳엔 빨간 꽃들이 있고
 그곳엔 푸른 잔디가 있으며
 같은 이상을 가진 동수들도 있지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
 당신이 번뇌로 고민스러울 때
 모두들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세상이 다할 자라도
 스승님이 인도하시니
 가슴속엔 기쁨만이 충만하겠지요


 스승님의 농담

정말 주도면밀한 선물

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간 남자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행지나 마찬가지로 물건들마다 너무 비쌌지요. 그래서 그는 깨진 꽃병 하나를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점원에게 친구의 주소를 주며 포장해서 그리로 부쳐달라고 했지요. 그러던 친구가 배달 중에 꽃병이 부서진 것이라고 여기고는 자기를 구두쇠라고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친구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깨진 꽃병을 선물로 보내주다니 정말 고맙다. 거기다 깨진 조각을 하나씩 포장해서 보내다니 참으로 생각도 깊구나!”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공연 그 이후.



파사데나 소년 성가대 단장 존 바론과의 인터뷰

미국 LA 센터 엔터테인먼트 팀 보도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1998년 12월 18일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자선 콘서트를 LA 슈라인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공연된 교향시 “평화의 구도자”는 오스카 작곡가상 수상자인

프레드 칼린이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파사데나 소년 성가대 역시 이 걸작품의 공연에 참여했다.

1925년에 설립된 파사데나 소년 성가대는 미국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시립 소년 성가대로 미국과 해외 순회공연에서 아름다운 공연으로 독자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이 성가대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LA 마스터 캐럴,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등 여타 저명한 공연단체와 같은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1971년 이후 성가대 단장에 주임해 온 존 바론은 어린이 복지과 교육 방면에서 오랫동안 뛰어난 경력을 쌓았으며 수많은 표창장과 상을 수상했고 일찍이 미국 회와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의견을 발표했었다.

어머니의 날과 스승님의 생신을 바로 앞둔 시기에 인터뷰가 진행되어 파사데나 소년 성가대와 존 바론은 칭하이 무상사에게 가장 따뜻한 인부인사를 전하고자 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존 바론은 성가대에게 스승님께 헌정하는 5곡을 공연하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자선 콘서트와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감상을 전했다. 다음은

2001년 5월 6일 진행된 바론 씨와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엔터테인먼트 팀(이하 킴): 어떻게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에 참가하게 되었나요?

존 바론(이하 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슈라인 강당에서 큰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그 중 프레드 칼린이 작곡한 “평화의 구도자”에는 소년 성가대와 대형 오케스트라, 독주자, 내레이터 등이 함께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州)에서 몇 개 안 되는 소년 성가대 중 하나니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수년 동안 공연한 우리로서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TV 공연이나 영화, 다른 많은 공연도 해봤지만, 이런 세계적인 공연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지요. 아마 몇 년은 되었나 봅니다. 게다가 유명한 작곡가인 프레드 칼린도 만날 수 있어 더욱 기뻐했습니다. 프레드는 콘서트 2주전까지도 아직 곡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그가 우리 성가대가 공연할 부분을 완성해서 내게 보내면, 나는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리허설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드가 이 작품을 끝낼 수 있을까?’ 왜냐

하면 상황이 매우 급박했거든요. 행사일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세상에, 아직도 미완성분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는 이 작품에 완전히 매혹되었지요. 프레드는 대단한 천재적인 작곡가, 편곡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도전성이 풍부하며 고난도를 요구하는 공연이었지요.

문: 곡에 붙여진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악곡의 형식이나 시, 그리고 시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모두 아름답고, 또한 줄거리를 듣고 있노라면 알게 되는 스승님의 인생에 대한 생각들 역시 아주 매혹적입니다. 프레드의 곡 역시 그와 동등한 매력을 갖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그 곡은 다방면의 음악 장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클래식 뿐 아니라 재즈, 락, 포크 음악 등도 포함되어 있지요. 당연히 클래식이 주된 선율을 이루고 있지만요, 이 시와 음악은 서로 아름답게 결합되어 대단한 결과품을 이루었지요.



문: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콘서트 전반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리고 음악가와 내레이터, 독주자, 음악 스타일, 독특한 무대 구성 등 음악회와 관련된 모든 방면들이 하나하나 놀라웠습니다. 특히 나는 아시아계 어린이들이 나오던 장면이 좋았습니다. 그 날 그 어린이들은 각국 전통의상을 입고 다른 편에 있던 우리 성가대원들은 전통적인 성가복을 입었는데, 우리 옷은 현대의 유행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고루할 수도 있지요. 수천 년 전 형태에서 그리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최근에 발행된 그 아름다운 음악전집 가운데

전통 성가복을 입은 우리 아이들과 각국의 아름다운 의상을 입은 아시아계 어린이들이 함께 무대에서 서 있던 사진이 너무 맘에 들더군요. 그건 다양한 색채와 많은 소재들이 어우러진 음악회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아주 전문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연수준 역시 매우 비범하고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칭하이 무상사와 그 분의 성인과 같은 성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예술창작품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스승님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분으로서 다재다능하십니다. 저는 스승님에 대해 많이 알고 싶은데, 그것은 스승님이 세상에 해아릴 수 없는 공헌을 하셨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이처럼 아름다운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모임을 갖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점을 볼 때면, 좋은 점도 보지만 나쁜 점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상 매 시대마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 세상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을 더욱 밝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스승님은 분명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문: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 스승님이 작은 빨간 봉투를 주셨을 때 아이들이 놀라지 않던가요?

존: 아! 우리는 이에 대해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승님이 이미 우리 성가대에 전달하신 자비로운 기부금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져 많은 소년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나 역시 이 선물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예상치 못한 선물에 깜짝 놀랐고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봉투들은 아주 예술적이고 색도 예뻐했습니다. 아꼈든 이것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는 “이건 칭하이 무상사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일부 아시아 아이들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지만, 다

른 비아시아계 소년들은 당연히 알지 못했지요. 그들은 그것을 감사카드 같은 것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는 모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문: 정말 듣기만 해도 즐겁군요. 그리고 그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 “I Will Forever Love You”를 콘서트에서 불렀잖아요.



존: 아이들은 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어떤 소년들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명곡이 된 것 같더군요. 그 노래는 마음 깊은 곳을 울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그날 밤 모든 아이들이 천천히 무대에 나오던 장면은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소프라노의 노래가 시작되고 곧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이어졌지요. 빌 콘터는 이 음악은 아주 멋지게 편곡해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은 한 리허설에서 이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시겠지요?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하지요. 이 노래의 가사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콘서트에 참석했던 청중들조차 따라 불렀으니 이 노래는 가슴에서 나온 음악 작품이라 할 수 있지요.

문: 그 날 음악회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즉 창하이 무상사의 즉흥 공연에 대해선 어떻게 느끼셨나요?

존: 아, 저는 피터 보이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놀랐지요. 처음에는 ‘스승님께서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피터가 스승님을 놀라게 하기 위해 만든 일일까?’ 하고 생각했다가 조금 지나서는 ‘스승님은 아마 알고

계셨을 거야’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쩌지!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정말 우아하시더군요. 데비 레이놀즈와 피터의 적극적인 격려를 받고 스승님은 대범하게 해내셨습니다. 리허설도 없이 아주 멋지게요! 그 순서에 대해 스승님은 전혀 알지 못하셨으니 진짜 대단하지요!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들도 그렇게 하진 못할 겁니다. 그러니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요. 나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문: 스승님의 예술작품들을 다룬 비디오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스승님이 해오신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스승님의 예술 작품과 의상 디자인, 보석, 그림 등 많은 형태의 창작품들을 보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아름답게 표현된 최고의 작품들을 그렇게 많이 창작하실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찬탄을 금할 수 없지요. 그리고 좁전에 말했듯이 이 세계를 둘러보면 창하이 무상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겐 무아로서 헌신하는 훌륭한 모범이지요.

문: 스승님께 안부를 전하시겠습니까?

존: 물론입니다. 스승님, 이렇게 놀라운 국제협회와 계속 연관을 맺을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스승님의 특별한 일들로 이처럼 아름다운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번 공연 참여로 특별한 감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 단체를 방문해 저희 가슴속에서 우리나라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스승님이 저희 단체에 해주신 모든 자비로운 지원과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스승님의 모든 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기: 다음은 칭하이 무상사와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에 대한 파사테나 소년 성가대원들의 소감을 요약한 내용이다: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I Will Forever Love You”는 더욱 좋아하지요. 이 노래는 정말 잘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날 청중들의 반응을 둘러보니까 스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 전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음악이 좋았는데, 마치 강물처럼 행사장을 흘러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칭하이 무상사를 위해 열린 이 콘서트가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꼭 오스카상 시상식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스승님의 생애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스승님의 공헌에 대해 알게 돼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해온 공연 가운데 가장 멋진 공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전에 TV나 다른 곳에서 했던 공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스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며, 또 스승님이 해주신 모든 일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함께.”

주: “영성과 예술” 비디오 39집에서 이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이메일을 주십시오: SUPREMEINTL@juno.com

명상 그 자체가 상이다

조 진리엔 사저/ 홍콩

스승님은 “명상 자체도 일종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명상할 수 있다면, 이른바 ‘체합’을 하건 하지 않건 그것만으로도 상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명상이 그 자체로 보상이니 동수들이 결코 명상에 질려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마야의 환상의 세계에서, 희로애락의 무상한 감정 속에서, 세속의 학식과 재능 속에서, 보시(布施)에서 복을 바라는 허상 속에서 그리고 경전과 신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된다. 다행히 우리는 살아있는 깨달은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 스승님은 무궁무진한 지혜의 보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인 명상을 통해 우리의 발목을 휘감고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 점차 우리를 해방시켜 성인의 자장으로 우리를 깨끗이 정화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성인의 세계로 날아오르게 된다. 그러니 명상은 정말 크나큰 상인 것이다!

포모사 소식

기쁨의 웃음소리가 타이난 감옥에 널리 퍼지다

타이난 교도소는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5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회를 개최해줄 것을 재청했다. 이에 동수 50여 명의 도움으로 24차례의 영성 세미나와 오락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각 행사 때마다 교도소 당국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한 교도관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때는 언제나 기쁜 웃음소리와 즐거운 노래가 함께 하는군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재소자들에게 “여러분이 내면의 불성을 찾지만 하면 다시 일어나 여러분 앞에 닥친 온갖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우리는 신이 이 감옥 속의 형제들을 축복해 그들이 하루 속히 육체적, 정신적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했다.



타이난 교도소에서 개최된 영성 세미나

단오절에 사랑을 베푼다

6월 18일과 20일, 타이난 센터의 동수들이 타이난과 까오슝 청소년 보호소를 각각 방문했다. 동수들은 손수 만든 풍조와 음료를 전하는 한편, 2차례의 영성 세미나도 개최했다. 가오슝 청소년 보호소의 황 주임은 세미나가 끝난 후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훌륭한 단체이며 우리들이 사회정화의 흐름을 조성해 묵묵히 그 사랑의 씨앗을 전파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 동수들이 손수 만든 풍조를 까오슝 청소년 보호소의 청소년들에게 나눠 주다. 맨 오른쪽이 황 진딩 원장.

지아이에서 열린 영성 세미나

2001년 6월 8일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포모사의 지아이 교도소에서 관음사자의 지도로 영성 세미나 교화활동을 펼치고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했다. 재소자들은 관음사자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설명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방편법을 전수했는데, 10분간의 짧은 명상 중에 빛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즐겁게 합창하는 가운데 이 의미있는 영성 세미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마음을 환하게 비춘 햇빛



[미국] 2001년 3월 18일 일요일, 케이프 코랄과 올란도 센터 소속의 플로리다 동수들이 마리아 스프링우드 요양원을 방문해 스승님의 사랑을 전했다. 우리는 난초와 “신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하얀 곰 인형을 그곳의 98명에게 직접 나눠 주고, 직원들에게 나중에 칫솔과 머리 빗을 분배해 주라고 부탁했다. 방문한지 10분만에 한 직원은 우리에게 환자들이 이처럼 많이 웃는 모습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특히 어린이들은 우리 동수들의 사랑과 성심에 깊이 감동받았다. 많은 환자들이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요양원 측에서는 우리의 개별 방문을 허용해 주었다. 스승님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진 그들은 질문에 모두 답변해 주자 만족스러워했다.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는 이제 이곳 도서관의 영원한 소장품이 되었다.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특히나 스승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동수들이 요양원을 떠날 무렵에는 한 사람씩 포옹했다.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갖고 싶다고 해서 주자 그녀는 가슴에 꼭 껴안았다. 자신이 매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 후 10일이 지난 후 우리는 요양원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었다. 요양원의 환자들이 그들의 인생에 햇살을 비추던 그 일요일 오후에 대해 아직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난초는 계속 꽃을 피우고 곰 인형들은 보행기와 휠체어에 매어져 그곳 사람들은 이것을 요양원을 홍보하는 “곰 부대”라고 부른다고 한다. 행사 담당자는 다른 휴일도 없는 때에 이렇게 방문해준 데 대해 매우 감동했으며 게다가 선물까지 준비한 것에 몹시 고마워했다.

이 행사를 통해 스승님의 사랑을 이 노인들에게 전했을 뿐 아니라 우리 역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사실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지상에도 존재하는 사랑



-경련성마비 환자들을 방문하다

[홍콩]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홍콩 동수들은 6월 초부터 일련의 자선행사들을 준비했다. 그 중 우리가 제일 먼저 착수한 계획은 ‘경련성마비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번 방문 중에 우리는 환자와 함께 그들의 생활환경과 지원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다행히도 그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적절한 편의시설 지원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불행해도 신이 그들을 잊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 홍콩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또 이 장애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말씀씨가 뛰어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병이 이들의 지성을 감소시키지 못했음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었다.

기쁨과 온정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포모사] 미아오리 타이안 향의 원주민 가족들은 9.21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불행히도 법적인 제약에 걸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왔다. 이 가족의 11명의 구성원들(성인 5명, 어린이 6명)은 캔버스 천으로 지붕을 이은 2개의 천막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빈약한 작은 천막들은 비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 자비로운 스승님은 이들의 상황을 아신 후 바로 기부금을 보내고 동수들에게 견고하고 안정된 집을 빠른 시일 내에 지어주라고 지시하셨다. 동수들은 즉시 더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시작해 아주 빨리 이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이 집이 완성되어 그 가족들에게는 안락한 집과 더불어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심이 함께 전해졌다.

收 據

清海無上師世界會 台照

中華民國 90 年 6 月 15 日

品名	規格	數量	單價	金額	備註
H 型鋼	一式			11648 元	
C 型鋼	一式			11000 元	
鋁窗	一式			9800 元	
工資				37500 元	
浪板	一式			30920 元	
總額新台幣 x 佰 壹 拾 零 萬 零 仟 捌 佰 陸 拾 捌 元 整					

함석집 건축에 들어간 건설비용 100,868 NT
의 영수증



이전의 천막으로 만든 원시적인 피난처



한때 6명의 아이들이 이 천막 속에 함께 살아야 했다.



이번에 새로 지은 함석집

잡초 뽑기를 통한 체험

동슈탕 사형/ 미국 샌프란시스코



어느 날 이른 아침, 나는 평소대로 명상하려고 3시 반에 일어났다. 명상 후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뜰에 무릎보다 더 자란 잡초를 깎으라는 내면의 스승님 말씀이 들려왔다. 올해 초 우기가 끝난 후 아직 땅이 무른 상태에서 잡초를 한번 깎은 적이 있었는데 몹시 고생스러웠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어도 나는 정원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잡초 깎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시간만 나면 명상하려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승님의 지시를 따라야 해’라고 생각한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장바나 장갑도 갖추지 않은 채 바로 앞뜰로 나갔다. 그리곤 가시로 무장한 잡초를 보고 겁을 먹었다. 그 잡초는 너무 무성하게 자라 상대적으로 다른 꽃과 식물들이 왜소하고 기죽은 듯이 보였다. 그들에겐 보호가 절실했다. 나는 바로 눈에 거슬리는 크고 강한 잡초들부터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맨손으로 이 가시가 달린 데다가 뿌리도 깊게 내렸을 잡초들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분명히 손이 아플 것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 나는 곧 어려움 없이 무릎보다 높게 자란 잡초들을 모두 뿌리뽑았다. 지난 경험에 따르면 이런 일은 삽으로만 할 수 있었지만, 하나씩 잡초를 뽑으면서 크고 강한 잡초

들이 생각보다 깊이 박혀있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어린 잡초는 뿌리가 아예 없는 것 같았고 늙은 내손은 천하무적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그날 아침에 3분의 1이나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아침 동안 땀도 한번 닦지 않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만큼 효율적으로 일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일을 끝낸 후 손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상처도 없었다. 나는 세심히 배려하시며 용기를 주신 스승님께 정말 감사드렸다.

우기가 끝난 후 몇 달 동안, 나는 “명상과 운동이 정원 정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시야에는 정원을 침범한 잡초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내게 있어 잡초는 해롭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존재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많은 행인들이 방치된 정원을 보고 고개를 흔들며 주인을 비웃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우리의 에고, 편견, 나쁜 습관에도 이와 똑같다.

그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도 우리는 이를 무시하고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참고 넘어간다. 스승님의 축복과 관음법문 수행이 없다면, 그것들은 내 앞뜰의 잡초처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계속 자라날 것이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members.mweb.co.th/godsdirectcontact/> (태국-태국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스웨덴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c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이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전세계 연락처

아프리카

★ 베닌	센터	229-30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865026 smcameroon@yahoo.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55-00-46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Mr. & Mrs. Suresh Patel	27-31-262-5111 surindie@intekom.co.za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Mrs. Tracey Ho	27-11-6402085 sahjbcenter@pchome.com.tw

★ 토고

팔리메 센터	228 410 948
로메 센터	228 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 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lukiise@yahoo.com
-----	---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maurice@email.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essence@intnet.mu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ster.com.ar
-----------------------------------	---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rs. Adalina da graca Munoz 591-337-2039 adamunoz@hotmail.com
--------	---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brcenter@hotmail.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ezapata@entelchile.net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87-4516 laurachenr@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 멕시코

과나후아토
멕시코칼리

멕시코DF

멕시코 주

몬테레이

★ 니카라과

마나과

★ 파나마

센터

★ 파라과이

C.D. 이스트

★ 페루

쿠스코

리마

푸노

트루히요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 캐나다

에드몬톤

킹스턴

런던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 미국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Mr. & Mrs. Jose Luis Sanchez Vargas	52-4-7436120
Ms. Sylvia Lagrange	52-65-684575 quanyin@telnor.net
센터	52-5-752-7472/5639-3506 kamel@avantel.net
연락인 사무실	52-5-852-1256 tecenter@ragnatela.net.mx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78387 mttycenter@starmedia.com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bett@hotmail.com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센터	51-1-4716472 lvalencia@terra.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chinghailmaperu@hotmail.com
Mr. Victor Carrera	51-1-2657429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Le Lam	1-613-260-1698 lam,le-quanyin@home.com
Mr. Armand Laplante	1-613-745-6050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home.com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aicompro.com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sheila@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전세계 연락처

애리조나 :	센터	1-623-581-0725 ArizonaCtr@aol.com			shinemound@earthlink.net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j@arkansas.net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캘리포니아 :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bce9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	센터	1-909-674-7814	미시간 :	Ms. Susan Manturuk	1-616-588-6341 manturuk@torchlake.com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juno.com
	Ms. Tina Polny	1-714-960-4518/960-4568 qin-na.polny@mindspring.com	미주리 :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롤라	Mr.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trobert@yoda.unl.edu
	Mr. & Mrs. Tang Thi	1-619-268-8651			
*샌프란시스코			네바다 :		
	센터	KHOALUONG@aol.com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Mr. & Mrs. Nghiem The Trung	1-609-667-3829 albert_nghiem@hotmail.com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Mr. Chang-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lusa.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822-1560 anawarskas@hotmail.com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뉴욕 :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 Mrs. Zhihua Tung	1-718-837-4884 dong@phys.columbia.edu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James_Le@adaptec.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juno.com	노스캐롤라이나 :		
플로리다 :			오하이오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von@swoca.net
	Ms. Trina L. Stokes	1-941-482-7542 tls77@aol.com		Mr. Gilbert Rivera	1-513-381-4554 wisdmeye@aol.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nt@aol.com	오리건 :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 & Mrs. Alistar Phuoc Minh Pham	1-503-642-1252 AlistarPhuocPham1@juno.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626-5546 Diep.Ngu.PA@juno.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Mr. & Mrs. Sang-Yoon Lee	1-773-261-4033 ilovesuma@hotmail.com	텍사스 :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wul@austin.rr.com
캔터키 :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루이지애나 :	Mrs. Jon L Fontenot	1-504-483-3234 jfontenot@hotmail.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메사추세츠 :				Mr. Tim Mecha	1-972-395-0225 mechat@email.msn.com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Mr. Weidong Duan	1-214-528-9178 water96@yahoo.com



전세계 연락처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수라바야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roltex@interserv.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370-3898 마젤랑
 DNgyuen376@aol.com 말랑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Compaq.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옥야카르타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dotplanet.com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007@hotmai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_a@caribe.net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shantiragyi@hotmail.com

아시아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armenhovhannisyan@hotmail.com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ms33.hinet.net
 Mr. Chuan-Ping Yang 886-2-23756784
 Mr. Chiu Min Fen 886-2-23890885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까오슝 Mr. Fei Lung Wu 886-8-7211692
 Mr. Yuan Hua Wu 886-8-7562020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 인도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indiatimes.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begodnow@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l@uei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Swastika 62-21-7364470
 센터 62-31-5673084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1@sby.dnet.net.id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ath.biglobe.ne.jp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02-2202-8090
 chinghai@unitel.co.kr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오종철 02-5755080
 유태인 02-7953927
 부산 센터 051-5819200
 quanyin@unitel.co.kr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이원석 051-8946645
 전주 센터 063-2747553
 임지환 063-2729087
 인천 센터 032-2441250
 이계식 053-7434450
 대구 센터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광주 센터 062-5257607
 김소연 062-2325630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734961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unitel.co.kr
 제주 센터 064-996113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supreme2@tm.net.my
 센터 60-3-9873904
 kls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cp@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몽고

울란바토르 Mrs. Luvsan Tsengel 976-11-344604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 미얀마

★ नेपाल Mr. Sai San Aik 951-667427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144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Mr. Bishun Neupane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Mr. Raj J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433-924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60927
jean@sol.lk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4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66-1-8248294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7126

★ 헝가리 센터 66-74-368329-30(c/o 155)
konk 센터 66-43-261878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유럽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64-3909200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2266-80399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377
universal@planetinternet.be

★ 불가리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36-3031
prague-center@chinghai.cz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 핀란드 헬싱키 Mis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fin_con_hhanh@artic.net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iobox.fi

★ 프랑스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24-31924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Mr. ChristianBastwoeste 49-30-3470-9262
연락인 사무실 49-5232-68564

49-211-5144785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Ms. Kang Cheng 49-89-3616347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그리스 아테네 Mr. Constantine Manos 30-61-278106
constantinem@hotmail.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thuong5@cs.com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heaven.bud@mail.mata.v.hu

Mr. Lux Tamas 36-309-611994
Ms. Dora Seres 36-1379-1924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ardleech@unison.ie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tnguyen@c2i.net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091-4874953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home.pl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포르투갈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1-920-4118
lisbon_center@n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Gareeva Lira 7-095-732-08-32
a-b-serapis@mtu-net.r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Ms. Lidia Kong 34-91-7756670

Mr. Wang Ya-King 34-95-2351521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34-96-3336208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72640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hang.nguyen@spray.se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전세계 연락처

		widlund@hem.utfors.se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말뫼	Mr. & Mrs. John Wu	46-40-973452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r. & Mrs. Ray Dixon	612-6685-3248	
		mats.gigard@telia.com	rayandjulie@linknet.com.au		
옵살라	Ms. Premila Perera Ivarsson	46-18-302029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premila-perera@pharmacog.uu.se			smcanbra@cyberone.com.au	
★ 스위스			멜버른	센터	613-9890-0320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Melbsmch@aol.com	
		gefliu@yahoo.com		Mrs. Rosemary Nagtegaal	613-9585-7871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r. Pham Van Bon	613-9470-4573
★ 영국				Mr. Alan Khor	61-3-9857-4239
체스터	Mrs. Janet Weller	44-1782-414989	퍼스	센터	61-8-9242-1189
	janet.weller@Zoom.co.uk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런던	센터	44-208-3742743		daveb@inet.net.au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Mr. Ly Van Tri	61-8-9244-7661
	pnl@matters19.freemove.co.uk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스코틀랜드				Mr. Hong Bo	61-2-97887588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hongbo_huang@hotmail.com	
		lillig@btinternet.com	태즈메이아	Mr. Peter John Boatfield	61-3-62293878
글래스고	Mr. Robert Jackson	44-141-637-7255	★ 뉴질랜드		
	Robert.jackson@classicfm.net		오클랜드	Mr. Kym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 오세아니아 ***				Mrs. Chanwu Wong	649-266-6898
★ 호주			크라이스트처치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Mr. Michael Lin	64-3-3436918
브리즈번	센터	617-3374-3339		chaomim@hotmail.com	
		briscentre@hotmai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glenprime@hotmail.com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타우랑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ctieng@dme.qld.gov.au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413-751-0848(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240-352-5643 /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vole@earthlink.net
팩스 :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 886-2-87910860
팩스 : 886-2-87911226

뉴스그룹

이메일: lovesrc@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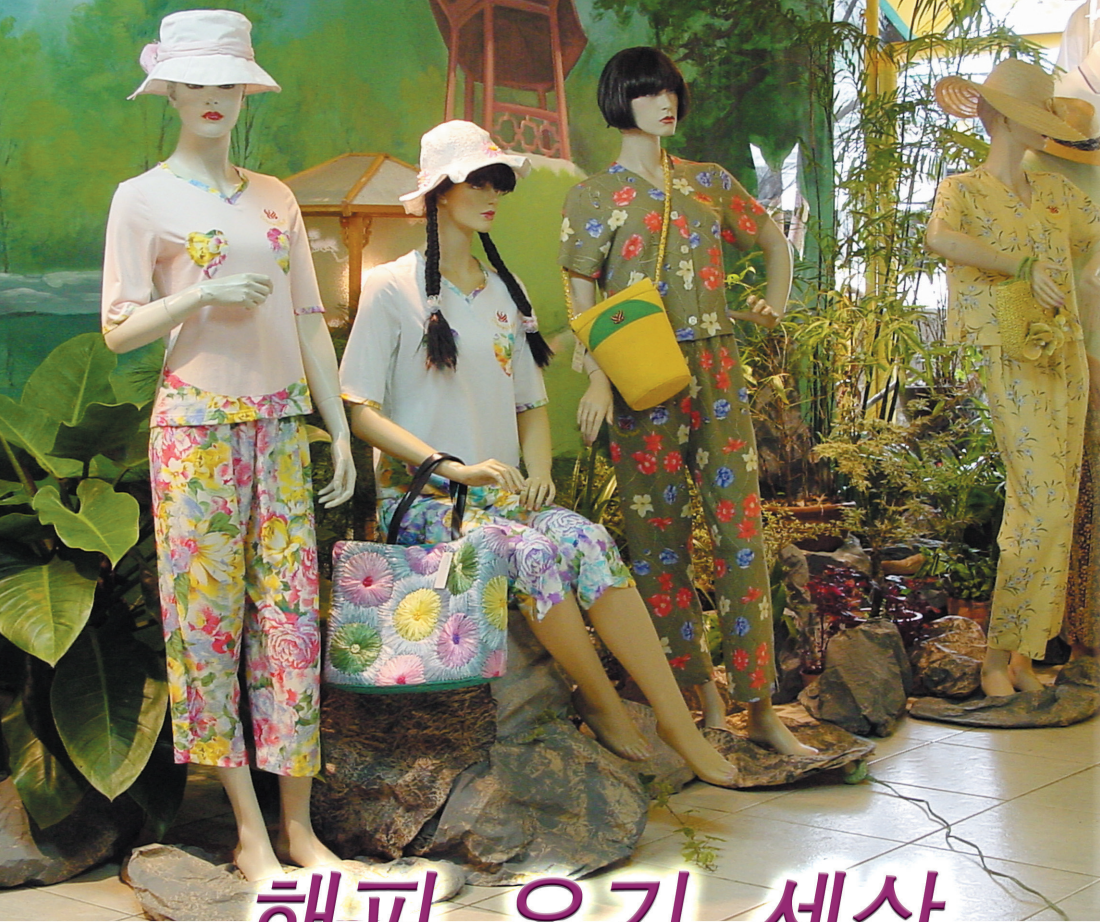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 (886) 2-87873935
팩스 : (886) 2-87870873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 (82) 2-2202-8090
팩스 : (82) 2-2202-809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가능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unitel.co.kr
전화 : (82) 54-532-5821
팩스 : (82) 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해피 요기 세상



여름 향기 물씬한 이6월
꽃들이 만발한 시후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고
아! 천녀들은
이 사바세계에 꽃을 뿌려
마음의 꽃을 피우는구나

여름 태양의 손짓에 꽃들이 한창 만발하고 있다. 스승님은
동수들이 여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해피요기 꽃무늬
평상복을 몇 종류 새로 디자인하셨다. 고전적이면서 화려한
'사랑 세트',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V 네크라인의 옷, 면마
혼방의 아름다운 체크무늬 옷, 그리고 꽃무늬 블라우스와
여성용 나팔 바지 등이 바로 그것!

<사랑 세트> 하얀 색 블라우스와 연자주 꽃무늬 바지, 연꽃색
블라우스와 오렌지색 꽃무늬 바지, 그리고 연분홍 블라우스와 분홍색
꽃무늬 바지 등 세 가지. 순면 소재의 블라우스는 둥글게 말린 차이나
칼라로 전통 중국의를상을 연상시키며, 긴 바지는 미소를 머금은 듯한 작약
꽃무늬로 더욱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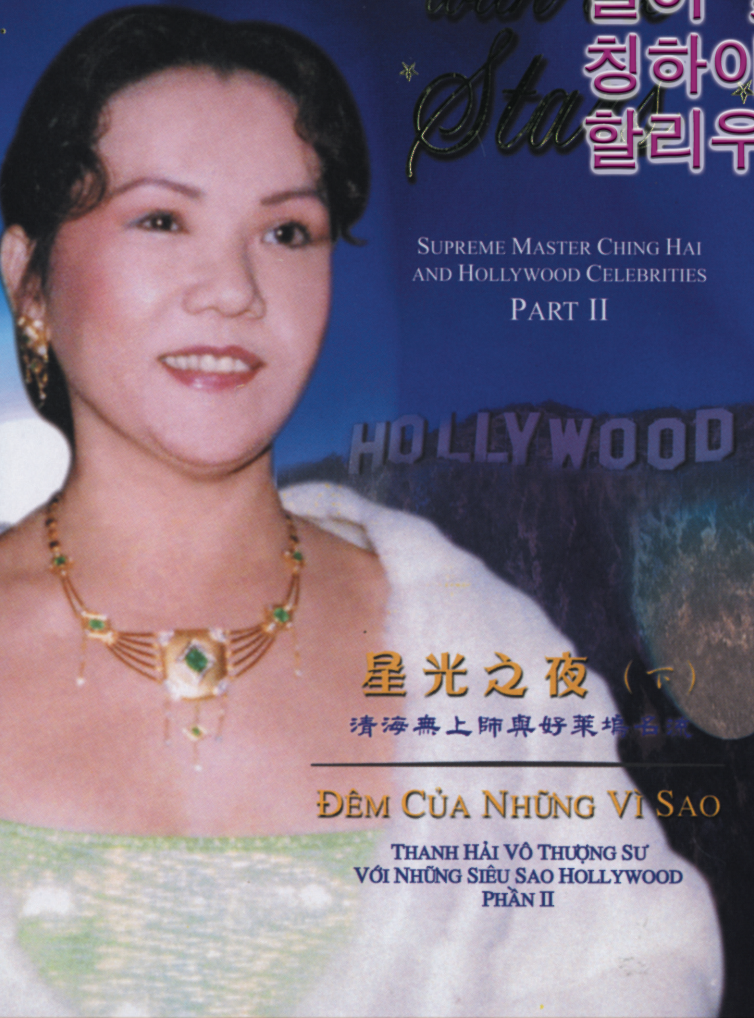
<체크무늬 세트> 연노랑 블라우스와 분홍색 체크무늬 7부 바지, 연분홍 블라우스와 연두색 체크무늬 7부
바지, 두 가지 색상. 블라우스 소재는 일본 순면, 7부 바지는 면마 혼방으로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고 입기
편하며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

<면마 혼방 세트> 노란 꽃무늬, 녹색 꽃무늬의 두 가지 스타일.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고 편안하면서도
옷맵시가 뛰어나다.

<V 네크라인 꽃무늬 블라우스> 가슴 부근에 단추가 달려있지 않아 여름에서 벗어난 느낌을 준다. 세
가지 소재로 되어 있어 다른 옷에 맞춰 골라 입을 수 있다. 흰색, 연한 카키색, 진한 카키색, 남청색,
검정색 등이 있으며, 신축성 있는 순면 나팔 바지와 한 벌을 이룬다.

공지 : SM친의 팀은 해피요기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이메일: happy_yogi88@yahoo.com.tw

칭하이 무상사 최신 비디오



별이 빛나는 밤 칭하이 무상사와 할리우드 유명인사들 (상, 하)

〈영어+중국어, 어울락어 자막〉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자선콘서트 후 칭하이 무상사와 VIP들의 연회, 예술가들과의 친밀하고도 솔직한 인터뷰, 할리우드 만찬회에 참석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모습 등 스타들과 함께 한 깨달은 스승의 사랑스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진귀한 비디오이다. 창의력이 풍부한 이 예술가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신성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스승님의 뛰어난 예술재능, 인류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자비로운 사명에 대해 깊은 찬사와 존경을 마지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엔터테인먼트 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122-A East Foothill Blvd. #306 Arcadia, CA 91006
전화: (626) 444-4482 / 팩스: (626) 444-4386
이메일: SUPREMEINTL@juno.com



칭하이 무상사 최신 MP3 CD

MP3-3 포모사 시후 선사, 1988년 9월 24일 ~ 27일 상, 하 (중국어)

1. 2. 가피력에 관한 이야기
3. 4. 왜 신통을 쓰면 안 되는가
5. 6. 스승님과 제자들의 중추절 행사 (합창)
7. 스승님과 제자들의 중추절, 스승님이 어울락 노래를 부르시다
8. 9. 동수들의 체험 발표
10. 11. 스승님이 각국의 명곡을 부르시다, 선칠과 선사는 무엇이 다른가?
12. 13. 선칠과 선사는 무엇이 다른가?
14. 선칠과 선사는 무엇이 다른가?